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케이팝 동아리 믹스 BU Today 대서특필



중국계, 흑인, 백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 매달 새로운 곡과 안무를 유튜브를 통해 발표



BU 케이팝 동아리 믹스(miXx)가 보스톤대학 홈페이지와 BU투데이에 대서특필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대학 케이팝(K-Pop) 동아리 믹스(miXx)가 보스톤대학(이하 BU)에서 발행하는 온라인매체 비유투데이(BU Today)에 대서특필 되면서 BU에서 케이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춤추는 모습은 분명 케이팝 아이돌 같지만 이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백인, 흑인 그리고 중국계 아시안들이 대부분이다. 한국계는 단 3명이지만 모두 2세대이다. 이 동아리 믹스는 BU 최초의 케이팝 커버댄스 동아리다. 커버댄스는 케이팝이 한류의 물결을 타면서 댄스 그룹의 춤을 그대로 모방하여 추는 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 케이팝 동아리 믹스는 BU내 같은 케이팝 동아리인 '소리안' 과 두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소리안은 한국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인 반면 믹스는 BU의 다채로운 인종처럼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다. 또한 소리안이 케이팝 노래에 집중한다면 믹스는 케이팝 댄스에 집중한다.

비유투데이가 믹스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들의 꾸준한 활동 때문이다. 믹스의 회원들

은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며 한 곡당 3주간 연습에 매진해 매달 새로운 곡과 안무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해왔다. 특히 연 2회의 정기공연은 BU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7면으로 계속

## 한반도 통일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가

서픽대 북한 및 한반도 통일 관련 강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월드보스톤과 서픽대 로젠버그 동아시아 연구소가 그레이트 디스커션 시리즈 두 번째로 한반도 통일이 조만간 가능할까



박한S 조지아 대학 국제관계 교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강연에는 조지아 대학 국제관계 교수이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인 박한S 박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3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 서픽대 학교 로셀리 K. 스탈 센터(Rosalie K. Stahl Center)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평화협상가로 유명하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폭탄 실험 및 로켓 발사의 의미와 남북한의 경제 및 기술 격차 등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장소: 서픽대 Rosalie K. Stahl Center (Amenities Room), 73 Tremont St. Boston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2016년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799**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799는 델타항공 요금입니다.  
2016년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전에는 예약되어야 하며, 2016년 3월 31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확정됩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Law Office,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한미예술협회는 세배 재현을 통해 한국 설날 문화를 알렸다

## 보스톤 미술관 설날 잔치 7천여명 찾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미술 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이하 MFA) 음력 설날잔치가 작년에 이어 성황을 이뤘다. 박물관 측은 2월 6일 열린 제 3회 설날 행사에 총 7,337명이 참가해 이날 잔치를 즐겼다고 밝혔다.

MFA가 한미예술협회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문화단체들과 협력하여 계획한 이 음력설 행사에는 한국의 세배를 비롯한 쿵후, 음악연주, 복주머니 공예, 사자춤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한미예술협회는 세배 재현을 통해 한국 설날 문화를 알렸다. 김신혜 씨의 사회로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시 세번에 걸쳐 세배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 미국인 관객들은 줄을 서서 한복을 입어 보고 세배법을 배우며 사진을 찍었다.

한 미국인은 자신이 25% 한국인이라며 세배를 자세히 관찰하였고 한 중국인은 한복이 무척 아름다우며 한복 입기가 본인이 가장 즐긴 프로그램이었다고 답했다. 미국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명절을 문화의 한부분으로 소개한 이 세배 행사는 한인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세배의 뜻을 가르치고 한복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성요한 교회 학국학교의 어린이 25명이 방문하여 준비된 한복을 입고 모두 세배에 참여하였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도 음악과 세배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한편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시음악 (Word Song)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연주회에서는 남세교씨가 번역한 김

소월의 시 '새벽' 에 네명의 작곡가가 곡을 붙인 신작 성악곡이 연주되었고 객석을 메운 관객들이 시와 음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였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가구 및 병풍을 운반하고 하루종일 세배와 한복 입는 것을 도와준 많은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고 전하였다. 김회장은 또 "한국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 소개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한미예술협회의 다음 프로그램 3월 국악 컨서트와 전시회 내용은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미술관 설날 잔치 중국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미술박물관(MFA) 설날잔치가 과도하게 중국 문화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행사 참가 한인들에게서 일고 있다.

6일 미국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던 한인 J씨는 "중국의 행사 전시가 압도적이었다" 고 느낌을 말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지만 사자탈춤과 화립과의 쿵푸 시범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J씨는 "화립과 쿵푸 시범도 멋졌고 특히 시범단에는 많은 백인 및 미국인들이 참여해 쿵푸의 대중성을 은연중에 확인토록 했다" 고 말했다.

지난해 행사에 참여했던 C씨는 "한국 문화 전시와 중국 문화 전

시는 전시 크기와 규모가 달랐고 압도적으로 중국 중심이었다" 고 회고했다.

김병국 한미 예술협회 회장은 "설날 한국문화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박물관 측이 일부만 선택한다" 고 말하고 "그래도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등을 제안해 한국문화의 설날잔치 기여도를 높여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전명호 사무총장은 이번 2월달에 매사추세츠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한인과 미국인들을 혼합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총장은 MFA 설날 잔치에도 초대해준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



엄성준 총영사와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 메인 한국학교 포틀랜드 어린이 박물관 설날 행사

박물관 2층이 방문객과 아이들로 가득차  
한국 악기 등이 6개월간 전시될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인 한국학교는 지난 일요일 (2월 7일) 에 학교 주최로 메인주에 위치한 포틀랜드어린이 박물관(Portland Children's Museum)에서 설날 행사 및 한국 전통문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무용발표회는 물론 전통 악기 전시 및 한국을 입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설날 동요부르기, 세배하기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한과와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신영옥 메인한국학교장은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재료로 조그마한 당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박물관 2층에는 방문객과 아이들로 가득차서 제대로 움직일 틈도 없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박지애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총무 등이 참석하여 설날 잔치를 격려했다.

또한 포틀랜드어린이 박물관 책임자인 수잔 올슨 대표 (Suzanne Olson, Executive Director)는 “한복을 입어보고, 세배도 받아 보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한국 악기와 녹음된 춤과 노래는 앞으로 6개월간 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포틀랜드 어린이 박물관에서 개최된 설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 악기와 녹음된 춤과 노래는 앞으로 6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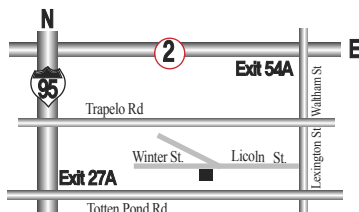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뉴햄프셔 조은경 신임회장 취임

##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햄프셔 한인회는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조은경 신임회장 체제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2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샬럿 소재 엘크스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선우 10대 회장은 조은경 11대 회장에게 뉴햄프셔 한인회기를 전달해 참석한 뉴햄프셔 한인들과 내외빈들에게 공식적인 취임식을 알렸다.

박 회장은 이임사에서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동포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 및 미 주류사회와의 관계발전을 위한 뉴햄프셔한인회의 활동에 더욱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회장은 “신임회장이 사무총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또 뉴햄프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학자로 충분히 자격있는 사람”이라며 신임회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조은경 신임회장은 우리 2세들과 동포사회와 모국을 위한 가치있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취임사를 갈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햄프셔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식도 진행됐다. 박선우 10대회장은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장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인들의 이민 100주년을 맞이

한 2003년부터 해마다 뉴햄프셔 주지사가 본 한인회의 신년하례식을 축하하고 이 날을 한인의 날로 선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성준 총영사는 이날 축사에서 제 9대와 10대에 이어 봉사한 박선우 회장의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하였고, 현재 뉴햄프셔주 주지사와 뉴햄프셔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하원의원이 모두 여성임을 언급하면서, 제 11대 한인회에서 여성회장이 탄생한 것을 축하했다.

임 총영사는 뉴햄프셔 한인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공로장을 준비해와 그동안 한인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박선우 전 한인회장을 감격케 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지난 수년간 뉴햄프셔 한인회보의 편집장으로 수고한 장의한 뉴햄프셔한인장로교회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기도 했다.

식사 후 2부 순서에서는 세계종이접기연합 미국보스톤 지부장인 윤미자 회장과 함께 세계평화와 신년각오와 한인회에 대한 덕담을 적어서 종이비행기로 접어서 날리는 시간을 가졌고, 황해인씨의 신년축하 장구공연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설날을 축하하였다. 한편 이날 경품 중 한국행 비행기표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참석한 김영환 씨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는 임성준 보스톤 총영사내외와 한선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하 평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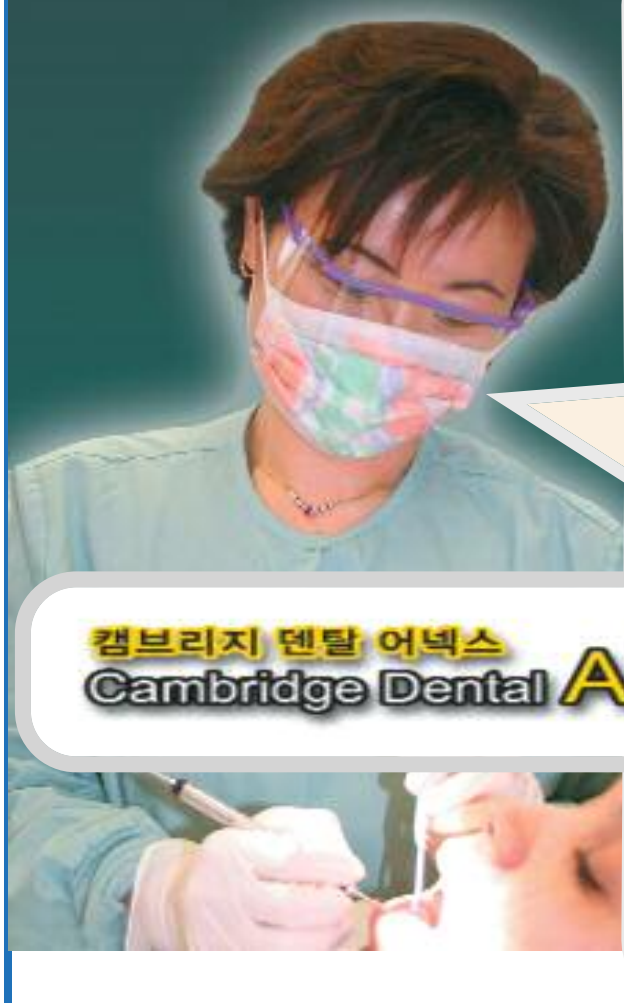
성황리에 개최된 뉴햄프셔 한인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 모습

통) 보스톤협회의회장, 유영심 보스톤 한미노인회장, 이경해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장, 한순용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 회장,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안병학 보스톤 한인회 이사장, 손순자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시코스트 지부장, 남궁연 보스톤총영사관 재외선거위원장 등 지역사회 단체장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편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매니저배상  
2명 정권  
7년 한정

정권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용삼의 만남

용삼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 하루 2번, 습관

##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거북목
- ✓안압고
- ✓면역력 증진
- ✓혈액순환 개선
- ✓안구 건조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보통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우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8

# 밀알 한국학교, 설 잔치 마치고 봄학기 개강 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첼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구정 전날인 지난 2월 7일에 다채로운 민속잔치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놀이, 공기놀이도 즐겼다.

김현주 교장은 “대부분 한인 가정 자녀들이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도 모르고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작년부터 이 행사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실제로 체험하며 부모님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옛 추억을 되살리며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민속잔치에서는 한국학교 인근 한인가정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한국학교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설 잔치를 계기로 처음 학교를 방문한 윤희, 윤아 두 자매의 어머니인 성제니퍼 학부모는 “아이들이 모든 민속놀이에 다 참여해 보고 무척 즐거워한다” 며 봄 학기부터 한국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설날 잔치를 마치고 새학기 개강 준비에 들어간 밀알 한국학교는 오는 2월 21 일에 2016년도 봄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밀알한국학교는 첼스포드에 소재 보스톤 밀알한인교회 안에 있으며, 수업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3교시 수업을 진행한다. 등록 문의는 김현주 교장(전화 678-516-4974, 혹은 hkipw@yahoo.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2월 7일에 개최된 밀알 한국학교 설날 잔치에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놀이, 공기놀이도 즐겼다



## 보스톤 새생활 센터 무료 영어교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된 한인들과 아직 영어회話が 어렵고 부담스러운 한인들을 위해 기초 및 중급 영어 교실을 운영한다.

강사는 BU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수십년 간 개인지도 경험이 있는 다나 그레이(Donna Gray)씨가 맡는다. 매주 화요일 초급은 오전 9시부터, 중급은 10시 30분 부터 각 90분간 진행되며 첫 개강일은 3월 1일이다. 강의 장소는 보스톤 새생활센터(4 Spring St., Stoneham, MA 02180)이다.

참석자들은 첫날 인터뷰를 통해 초급 또는 중급으로 나뉜다.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학급을 소수 그룹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한인들은 강영실(978-804-5254) 씨에게 전화로 등록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수강은 무료이며 교재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지난 해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개최된 UKC 2015에서 열린 대학원 장학생 시상식

# 재미과기협 '2016 학부생, 대학원생 장학생' 모집

우수 과학 기술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 선정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2016 재미과기협 장학생' 을 모집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과학, 공학, 의약학 분야 등을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재미과기협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 를 마친 상태 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나 대학원생 모두 신청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000 달러이다. 한미 과학협력센터(KUSCO)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대학원생 장학금 은 15명에게 각 1,500달러씩 수여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생 수여자들은 오는 8월 10일 -13일 텍사스주 달라스 에서 개최되는 '2016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UKC 2016) 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학부와 대학원 장학생 응모마감은 4월 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등이다. 이강원 로드아일랜드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미과기협 장학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성적과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과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scholarship.ksea.org>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응시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문의 : 재미과기협 본부 [hq@ksea.org](mailto:hq@ksea.org), 703-748-1221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장학생을 모집 한다.

서울대 동창회는 선발된 한인 12학년/대학/대학원 학생에게 1인당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의인 서울대 동창회 회장은 "장학생 선발에는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개별 상황도 고려할 계획" 이라고 밝

혔다.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2016년 4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신청서는 동창회 웹사이트 (<http://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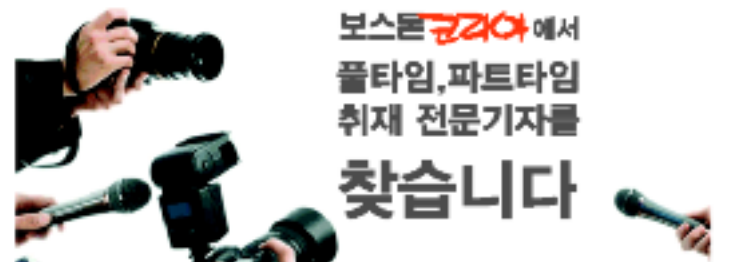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2015년 NE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사를 씁니다. 초기심에 좋고, 청실한 사재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은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http://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K-Pop 전문가 3명 BU 강연, 뜨거운 성원 보여

## BU K-Pop 동아리 miXx 기획, 관객들의 질문 끊이지 않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대학의 케이팝(K-Pop) 동아리인 믹스(miXx)는 지난 6일 예술과학대학(College of Arts & Sciences) 건물 5층에서 케이팝 관련 종사자 3명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제프 벤자민 씨, 박애주씨, 한나 웨이트씨는 한국 문화산업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기 희망하거나 케이팝에 관심 있는 300여명의 학생들의 열띤 성원을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강연을 진행했다.

前숨피(Soompi)에디터였던 박애주씨는 케이팝과 다른 산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씨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

계로 확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인터넷 문화와 소셜 미디어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케이팝은 다른 장르의 음악과 달리 음반 시장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다른 문화산업을 넘어 패션이나 화장품,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메이저 산업으로 발전했음을 역설했다.

moonROK 공동창업자인 한나 웨이트씨는 한류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케이팝이 세계화 되고 있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현지화 될 것을 주문하며, 특히 한국의 문화와 예절과 대화방법의 차이를 몸에 익힐 것을 당부했다.

빌보드닷컴 칼럼리스트인 제프 벤자민씨는 팬들의 케이팝 종사자들에게 대해 갖는 환상과는 다른 현장에서 느

끼는 어려움을 소개하였다. 그 예로 레이스 코드 멤버들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fact)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저널리즘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전체 진행의 절반을 질문시간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끊이지 않는 질문으로 그들의 케이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믹스의 회장으로 임명된 16년도 신입회장 허정민씨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강연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전 운영진들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것처럼, 신입 운영진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케이팝을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부탁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miXx는 매년 2회씩 정기공연을 가져왔다. 사진은 작년 하반기 정기공연

## 보스톤 대학, 학내 케이팝 동아리 miXx 통해 새로운 문화현상에 주목

▶▶1면에 이어서

또한 비유투데이는 전 BU학 생이었던 가수 싸이가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케이팝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믹스 멤버들의 활동과정을 인터뷰와 함께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였다.

2015년도 회장을 역임한 엘리 후(예술과학부, 16년졸업)씨와 사라 우(커뮤니케이션학부, 17년졸업)씨는 비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커버댄스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동아리의 가장 큰 매력”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케이팝이 미국 팝이나 다른 대중음악들과 다른 점으로 화려한 안무와 무대효과, 패션, 화장법 등을 꼽았다.

믹스는 2013년 흑인계 돈드레 검스(Dondre Gumbs) 학생이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444명의 멤버가 참여해 활동했으며 2016년 현재 60여명의 멤버가 활동중이다. 앞서 밝혔듯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해 케이팝을 연습한다. 이들은 뉴욕 또는 LA에서 열리는 케이팝 커버 댄스 대회 등에도 참가한다. 지난 6일에는 K-Pop 산업에서 활동하는 3명의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강연도 가졌다. (본지 7면 참조)

올해 믹스 회장 허정민씨는 이 동아리가 “K-Pop을 좋아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고 말했다. 특히, 퍼포먼스를 하는 멤버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촬영을 비롯하여 공연에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믹스의 커버댄스 뮤직비디오와 공연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BUmiXxKPopDan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K-Pop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케이팝 전문가 3인은 청중들의 열띤 성원속에 강연을 진행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한나 웨이트씨, 제프 벤자민씨, 박애주씨.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원형준씨의 이번 강연에는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하버드생 50여명이 자리했다

##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 하버드 특별 강연

음악으로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는 지난 10일 하버드대학교 커클랜드 하우스에서 남북평화를 위한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주제로 짧은 연주회와 함께 특별 강연을 가졌다.

북한 인권을 위한 하버드 학생들의 모임인 HRiNK (Harvar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회장 조셉 최)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강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양국관계가 냉각된 상황속에 진행되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원씨는 지난 8년간 남북 합작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남북한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아직 실현시키지 못했다. 원씨는 이날 강연에서 남북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을 소개하면서, 서동시집 관현악단 (West-Eastern Divan Orchestra)의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음악으로 평화를 만든데 기여했던 것처럼 남북을 음악으로 하나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연회 이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원씨는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히 남북한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전인류를 위한 발현임을 강조했다. 그는 크게는 거시적으로 중동사태부터 미시적으로 여야갈등, 노사갈등, 진보와 보수, 갑을관계 등 우리 사회에는 무수한 갈등과 분쟁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는 음악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이념과 분쟁을 넘어서서 음악을 통해 화합을 이

뤄내는 과정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HRiNK의 회장 조셉 최(하버드대, 3학년, 경제학)는 이번 행사를 오랫동안 기획해 왔다고 말했다. 前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시라 큐스 대학의 프레드 캐리어 (Frederick Carriere) 교수의 주선으로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보스톤 방문과 10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자신이 믿는 것에 더 크게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린덴비움 뮤직의 설립자이자 예술 감독으로 활동 중인 원씨는 오는 13일에는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동하여 한 차례 더 강연을 가진 후 25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 하버드 지원자 수 사상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은 무려 39,044개에 달하는 2016년도 입학 지원서를 받아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의 최고 기록인 37,305 지원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윌리엄 피츠시몬스 하버드 입학 및 재정보조 학장은 올해 지원자 수가 4.6%의 증가한 것은 하버드 재정보조 이니셔티브와 대학소수민족 입학모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특정 타깃의 학생들의 지원을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츠시모 학장은 또한 하버드 동문인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회장과 헤지펀드계의 거물 존 폴슨 등의 거액 기부금이 하버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지원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자들은 22.1%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 온라인 코스의 인기도 때문인 것으로 입학과장은 분석했다.

이처럼 학과별 관심도가 달라진 것과 달리 소수민족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원자의 21.1%가 아시아인이었고 12.2%가 라티노, 그리고 10.6%가 흑인 그리고 2%가 미국인디언 또는 하와이 본토출신이었다.

한편, 예일은 총 31,439명의 지원을 받았고 프린스턴은 29,313명의 지원을 받았다. 이 두학교의 지원자 수도 기록적인 수이다.

하버드는 얼리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 918의 입학을 허용했다. 지난 12월 얼리 액션 지원자의 14.8%만 합격관정을 받았다. 이는 2011년 이 프로그램이 부활한 이래 가장 낮은 합격율이었다.

지난해 하버드는 37,305 지원자 중 사상 가장 낮은 5.3%만 합격시켰다.

hsb@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25 이하로 즐기는 보스톤의 겨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눈이 왔다고 해서 집안에만 꼼짝 않고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발렌타인 주말도 다가오는데 \$25 이하로 저렴하게 보스톤의 겨울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낭만적인 야경 감상과 야외 스케이트장부터 맥주나 초콜릿 공장 투어까지 놓칠 수 없는 이벤트가 풍성하다.

### ▶프루덴셜 스카이워크 전망대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99  
617-859-0648  
skywalkboston.com

프루덴셜 타워 52층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는 보스톤의 야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요즘은 눈 내린 보스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푸른 여름과는 또 다른 매력의 보스톤을 감상할 수 있겠다. 입장료는 어른 \$17이며 6학년 이하 어린이는 \$12, 학생증을 지참한 대학생은 \$13, 62세 이상은 \$14이다. 입장료에는 오디오 투어가 포함되며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탑 오브 더 허브(Top of the Hub)가 함께 위치해 있어 로맨틱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뉴잉글랜드 보트쇼

415 Summer St., Boston, MA 02210  
617-954-3480  
newenglandboatshow.com

여름을 몰고 온 듯한 뉴잉글랜드 보트쇼가 오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보스톤 컨벤션&엑시비션 센터에서 열린다. 각종 보트와 관련 아이템이 전시되는 보트쇼의 입장료는 어른 \$15이며 어른과 함께 동반한 1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이외에도 보트 라이선스 취득, 바다에서 세일링 배우기 등의 다양한 세미나가 일주일 내내 열린다.



### ▶프로그 폰드 아이스링크

The Boston Common Frog Pond, Boston, MA 02108  
617-635-2120  
bostonfrogpond.com



보스톤커먼에 위치한 프로그 폰드(Frog Pond)는 겨울에 아이스링크가 개장되어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찾는 곳 중 하나다. 어른은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를 합해 \$18이며 58인치(147cm) 이하 어린이는 스케이트 대여료만 내서 \$6이다. 물품 보관함 이용료는 \$3이다. 눈폭풍으로 인해 개장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새뮤얼 아담스 맥주 공장 투어

30 Germania Street, Boston, MA 02130  
617-368-5080  
samueladams.com/boston-brewery

보스톤의 대표적인 맥주인 새뮤얼 아담스의 공장이 시음을 포함한 투어를 제공한다. 투어 입장료는 무료지만 \$2의 도네이션을 지불하는 것을 권장한다. 투어는 예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많은 토요일 같은 날은 일찍 가서 줄을 서야 한다. 한가한 오전 시간대의 '모닝 매시 인 투어(Morning Mash in Tour)'는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하니, 이른 아침투어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저렴하게 즐기기

보스톤의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평소 입장료가 \$16인 보스톤 어린이 박물관(Boston Children's Museum)은 타겟 프라이데이(Target Friday)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단 \$1로 입장할 수 있다.

보스톤 미술관(The Museum of Fine Arts)은 목요일에는 무료 입장이며 17세 이하 학생은 평일 오후 3시 이후와 주말은 무료다. 캠브리지 소재 MIT 박물관(MIT Museum)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입장료가 무료다(7,8월 제외). 베니스풍 창문으로 멋스럽게 장식된 정원과 앤티크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은 생일을 맞은 방문자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희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관절염
-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피부염
-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임신, 갱년기, 여성성 호르몬 이상
-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 노인 재활치료, 노인 재활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보스톤 재산세 인상안 주민투표 안건 될 수도

## 싱글 하우스 기준 평균 23달러 인상 비슷한 법안 2001년에는 부결 경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주민들은 조만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2명의 보스톤 시의원이 보스톤의 재산세를 1%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주민 투표 안건으로 신청했다.

재산세 1% 인상안이 주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 기준으로 평균 23달러만큼 세금이 인상된다. 사무실, 아파트 건물 등 상업 용도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

재산세가 인상되면 보스톤 시 정부는 약 1,300만 달러의 추가 조세 수입이 생기고, 주 정부로부터 600-700만 달러를 더 받게 된다. 재산세 인상으로 거두어지는 조세 수입은 보스톤 시의 주택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적지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어포터블 하우스 프로그램에 집중 사용되어 부동산에서 거두어진 세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마이클 플레허티 의원은 밝혔다. 플레허티 의원은 안드레

아 캠벨 의원과 함께 재산세 1% 인상안을 공동 발의했다.

플레허티 의원은 “보스톤에 평생 거주했던 주민들로부터 주택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며 “그러나 어포터블 하우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말했다.

보스톤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인상에 찬성하게 되면 2000 커뮤니티 보호 법안에 의해 보스톤 시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대도시에서 한해 주택 사업, 공원, 사적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 법이다. 캠브리지, 서머빌, 퀸시를 포함한 160개 도시와 타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미 보스톤 주민들은 지난 2001년에 비슷한 안건을 주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에는 주민세를 2% 인상하는 법안이었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현재까지 15년 동안 2억 달러 이상의 조세 수입이 추가로 걷혔을 것이라고 플레허티 의원은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재산세 1% 인상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플레허티 보스톤 시의원



매사추세츠 휘발유 가격이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MA주 휘발유 가격 2009년 이래 최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유가 하락에 힘입어 매사추세츠 주의 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리플에이(AAA) 노스이스트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셀프 주유, 레귤러 휘발유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7달러이다. 지난 주와 비교하여 4센트가 더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77달러보다 낮았던 때는

2009년 1월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40센트가 내려갔고, 현재 미국 전체 평균보다는 3센트가 비싸다.

트리플에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의 휘발유 가격은 1.61달러이며, 가장 비싸게 파는 곳은 1.94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 내 원유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동의 산유국들도 여전히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쌩쌩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DC, CBS, FOX, NBC, OCN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뉴햄프셔 개표 완료...샌더스 60.4% vs 클린턴 38%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대선풍향계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최종결과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60.4%의 득표율로 힐러리 클린턴(38%) 후보를 22%p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35.3%으로 1위를 기록했고 존 케이스 오하이오 주지사가 15.8%의 득표율로 깜짝 2위를 기록했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 3위권 싸움에서는 테드 크루즈가 11.7%로 쟁부시(11%)와 마르코 루비오(10.6%)를 가까스로 따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미국 정치계를 역행하는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

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8년 전 이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던 힐러

리를 제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뉴햄프셔 주에서 프라이머리의 선거결과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다

## 흑인의원들 "힐러리 지지...인권운동 현장에 샌더스는 없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일 흑인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열리는 네바다 주 코커스(당원대회)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프라이머리 등 소수인종이 향방을 결정짓게 되는 주요 경선전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미 연방의회 흑인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CBC) 내 정치행동위원회는 이날 투표를 거쳐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CBC의장인 G.K 버터필드(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위원회 멤버들의 거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내 및 외교 정책과 두루 잘 아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우리 새 대통령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지속되는 가난에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일하게 한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만한 자질과 경험, 기질을 갖췄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 사람은 다음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틴 루서 킹 목사과 함께 1960년대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유명 흑인 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겨냥해 "나는 그를 솔직히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1963~1966년 학생비폭

력조정위원회 의장을 맡아 연좌농성과 프리덤라이즈 운동, 워싱턴 '백만 행진', 셀마-몽고메리 참정권 운동행진 등에 관여했다"며 "그러나 나는 힐러리 클린턴만 만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는 샌더스 의원도 1963년 워싱턴 '백만 행진'에 참석하는 등 이들 운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BC 멤버들은 샌더스 의원의 그러한 이력이 클린턴 전 장관이 남부 주에서 과거에 했던 흑인 민권운동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고 본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의원은 "비교가 안 된다"며 "클린턴 전 장관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샌더스 의원은 중간에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shin@yna.co.kr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 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힐러리에 또다른 '악재'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이 11일 미국 국무부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로 관리해온 이메일을 이달 말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달 하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또다른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이날 국무부에 대해 오는 13일과 19일, 26일, 29일 네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 분량 공개해왔으나, 아직도 3천700개의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관련 이메일은 모두 5만5

천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문제의 이메일을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국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은 1천500개가 넘는 이메일이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배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는 2012년 9월 무장괴한들이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 초안을 작성 중이다.

rhd@yna.co.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글로벌수용**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대표인 Gina Choi는 10년 이상 뉴스타 리얼티에서 근무하며 (MBA)를 취득하고 전직 FINANCIAL CAMBRIDGE 지역 1인 이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설립된 3차 봉사단체인 1000명의 기금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ker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h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역민, 한마루, 사출 실방만, 침단과대 걸쳐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감산 불발 산유국들, '생산동결' 대안 모색

### "이란이 동의한다면 사우디도 찬성할 듯" "점유율 빼앗긴 이란으로선 수용 어려워"

(로이터=뉴스1) 정혜민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 일부가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들 간의 "산유량 동결"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감산 공조가 어려워지자 차선책인 '동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사우디가 이 아이디어에 찬성할 것인지는 이란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동결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의 증산계획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 수준에서 산유량을 동결하자는 제안은 에울로히오 델 피노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을 순방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생산량 감축이든 최소한 동결이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는 6월 OPEC 총회 이전에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게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결 합의를 위한 모임을 빨리 갖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른 국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러시아와 카타르 사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알리 알 나يمي 사우디 석유장관도 지난 7일 델 피노 베네수엘라 석유장관과의 회동에서 '동결' 제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제안에 열린 태도를 보였으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증산 계획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사우디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 점이 동결합의의 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란의 입장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제안이 OPEC 회원국들 내부에서 강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으로서는 증산 억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란은 지난 2012년 경제제재로 잃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싶어한다. 경제제재는 지난 1월에 해제됐다.

반면, 이란을 제외한 주요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란의 과거 시장을 차지해 놓은 상태다. 이란까지 참여해 산유량을 동결하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고수하면서도 유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

hemingway@news1.kr

# 미 도로교통안전국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인공지능"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차량의 '운전자'로 판단했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NHTSA는 구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무언가'를 운전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주행차에 한해서는 운전자 좌석이 필요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맡은 크리스 엄슨 이

사는 당시 NHTSA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 디자인이 미국 연방법의 안전규정을 충족하는지 질문했다.

현지 외신들은 NHTSA의 해석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청신호라고 분석했다.

앤토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제 차량 운전자로 인정한 해석은 큰 의미가 있다"며 "NHTSA가 교통의 안정과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혁신을 포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측은 엄격한 연방 안전규정을 만족하

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1@news1.kr



지난해 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구글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에릭 슈미트 현 알파벳 회장(왼쪽)과 앤토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

# "엔고 파이터' 구로다,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화 초강세 행진을 막기 위한 공격적 개입에 나설 것인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과거 일본 재무성 재무관 시절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무려 480조원(약 4000억달러)을 퍼부었던 전력이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른바 '구로다 콧'으로 추정되는 달러당 115엔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 환율수준은 일본 수출업체들의 선호 레벨로 경기방어 환율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1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장중 111엔선마저 위협을 받는 엔 초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기존의 달러매수, 엔화매도 포지션들의 엔화 되사들이기 주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BofA 메릴린치의 외환전략가 야마다는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일목균형 구름대(114.71엔)를 하향 돌파한 상황이라 달러/엔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999년~2003년 사이 재무성의 재무관으로서 환율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엔고 파이터'라 불리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입을 해 명성을 얻은 바 있다. 한번 시작하면 시장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전투력을 과시했었다.

투자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이날 '엔화 개입, 전통적인 환율정책

으로의 회귀(Yen Intervention-the time for conventional policy return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점쳐봤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보여주는 금융시장 상황이 엔 초강세와 닛케이 폭락세로 꼬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구나 1월말 통화정책 추가완화 이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 실망감이 배가되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도 일조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당국의 엔 약세 유도 능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흐름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엔화는 일본증시(수출효과)와 물가부양의 구심점이므로 이제는 전통적 외환시장 개입 도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한때 엔고 파이터로 이름을 날렸던 구로다 총재가 13년이 흐른 지금 동료들(G7)에게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구로다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엔화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쉰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오버슈팅(과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엔화 초강세는 아베 정부의 성공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다시 디플레이션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parkbw@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COLDWELL BANKER**  
SERVICES REALTY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엘런 FRB 의장 "금리인하 실효성 따져봐야"

(서울=뉴스1) = 재닛 엘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1일 미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검토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고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고용 시장 개선세와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떨어진 실업률이 연준의 결정을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위험자산 매도세로 미국 경제 침체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엘런 의장은 전날 하원에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조만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면서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요인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엘런 의장은 "FRB는 외국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위험을 정책 검토에서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이 미국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엘런 의장은 지난 2010년 연준이 기업과 정부를 위한 시장 유동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엘런 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현시점에서 어떤 법적 제

약도 알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FOMC에 대해 엘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재닛 엘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검토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고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고용 시장 개선세와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떨어진 실업률이 연준의 결정을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위험자산 매도세로 미국 경제 침체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엘런 의장은 전날 하원에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조만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면서 "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있는 많은 요인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엘런 의장은 "FRB는 외국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위험을 정책 검토에서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이 미국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엘런 의장은 지난 2010년 연준이 기업과 정부를 위한 시장 유동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엘런 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현시점에서 어떤 법적 제약도 알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FOMC에 대해 엘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재닛 엘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미 법무부 '흑인 인권시위 촉발 퍼거슨시 제소'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법무부가 10일 백인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이 격화됐던 미주리주 퍼거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퍼거슨시에서 인종 차별 및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 위반 행위가 만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가 경찰·법원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시의회가 10일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퍼거슨시는 전진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있었음에도 후퇴를 선택했다"며 "시는 (개혁안의) 불수용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같은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린치 장관은 "퍼거슨시 경찰관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음에도 차량운전자들을 일상적으로 멈춰세우고 그럴듯한 근거 없이 체포하거나 불합리한 무력을 사용했다. 또 인종적 편견에 따라 행동했으며 비위협적 상황에도 불필요하

게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브라운의 죽음을 계기로 퍼거슨시 당국은 법무부와 경찰·법원 개혁안을 논의했고 뚜렷한 근거 없는 경찰의 연행 제한 등의 사항에 법무부와 합의했지만 퍼거슨시 의회는 개혁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10일 찬성 0표 반대 6표로 부결했다.

브라운은 지난 2014년 8월 비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격에 사살됐다. 이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퍼졌다.

브라운의 사망 직후 퍼거슨시 위치한 세인트루이스카운티 대배심이 윌슨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결정하자 흑인 사회가 크게 반발했고 법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퍼거슨시의 사법제도를 조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퍼거슨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종차별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lchung@news1.kr



### CHESTNUT HILL MALL | NATICK MALL NOW HIRING



CALL  
1.877.486.4756  
VISIT  
uniqlo.com

직접 매장을 찾아 인터뷰를 신청해 주세요

Uniqlo The Mall at Chestnut Hill : 199 Boylston St. Newton MA 02467  
Uniqlo Natick Mall : 1245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 건조한 겨울철에도 '촉촉한' 물광 피부를 만들수 있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 '라셈드' 시술 통해 건강한 피부로의 개선 효과 증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쌀쌀한 요즘, 추위로 인해 옷차림이 두꺼워지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손상되는 일이 많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인체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가장 표면에 있는 피부의 신진대사 역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각질층의 탈락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메이크업이 들뜨고 모공을 막아 여드름은 물론 잔주름, 잡티, 홍조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게 된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자랑한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의 피부비결은 무엇인가?

연예인들의 경우 선천적으로 피부가 좋은 이들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타인의 이목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손길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연예인 못지 않게 사회생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연예인 꿀광 피부를 동경하며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최근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 콤플렉스의 개선을 위해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많은 연예인

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한 레이저기는 바로 '라셈드' 이다.

최희 아나운서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라셈드' 는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로 일반적인 프락셔널 레이저와 달리 피부 겉만이 아닌 피부 깊숙히 레이저를 침투시켜 피부 스스로 재생효과를 갖게하며 피부타입별 애플을도 포함 수 있고 사용된 애플은 약 2주 정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가능한 레이저로 단순히 일시적인 피부의 개선인 레이저에 비해 효과가 크고 인기가 높다.

시술 후에 붉음증, 통증 등이 적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스타동안성형외과 최호철 대표원장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을 피부 진피층까지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피부 속부터 촉촉한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 며 "개인의 피



부상태에 맞추어 애플을 선택해 시술함으로써 피부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관리 만족도가 높다" 고 말했다.

고국방문 의료 서비스 '휴람 네트워크' 의 김수남 팀장은 "휴람과 제

휴를 맺고 있는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 는 '라셈드'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이라며 "짧은 시간내에 피부 개선을 원하는 분이라면, 한국방문시 꼭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고

했다. '스타동안성형외과'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가슴성형이야기

### 출산 후 처진 가슴, 아직도 콤플렉스인가요?

얼마 전 30대 중반의 한 주부가 병원을 찾아왔다. 이 주부가 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가슴 때문인데 상담을 해보니 20대 후반에 출산 후 모유수유를 병행하면서 가슴이 처지고 모양이 이상해져서 고민이라고 한다. 처지고 망가진 가슴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도 부끄럽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사라져 원만한 성생활 자체도 힘들어 우울증까지 왔다는 여성.

이처럼 주위에서 임신 후 수유 후 처진 가슴 고민으로 병원을 찾거나 모유수유를 망설이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산 후 가슴 모양이 변하는 것은 어쩌면 인체의 이치상 당연하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수유기가 되면 가슴은 전 상태보다 놀랄 정도로 가슴

이 커지는데 수유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작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작아지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유방의 모양에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는 유방조직 내부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유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방이 많아지게 되고 유선조직의 비율도 줄어들게 되기에 어쩌면 출산 후 가슴 처짐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임신과 잦은 출산을 하면 이렇게 가슴의 변형도 빨라지게 되는데, 이처럼 수유기가 끝난 후에는 탄력이 없어지게 된다.

가슴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유두 자체가 아래를 향하면서 가슴 아래쪽에 주름이 생기어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 후 가슴 리프팅과 가슴 확대술을 병행한 가슴성형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처진가슴을 위로 올려주고 볼륨 없는 가슴에 안전한 보형물을 이용하여 탄력있고 풍만한 가슴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출산 후 처진가슴의 경우 수술전 리프팅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확대술만 진행할 경우 윗 가슴이 볼록해지거나 이중주름이 발생하여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과 확대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무사 귀환...12년만에 폐쇄

이날 오후 11시 5분경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입주기업 중요물품 다 챙기지 못해...유감"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11시53분 단전 조치도 이뤄져

(서울=뉴스1) 김효진, 권혜정 기자 =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 만인 11일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 측 인원 전원은 이날 밤 늦게 안전하게 귀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 5분경 우리 측 인원 280명이 모두 출경철차를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추방 마감시한으로 정한 오후 5시(남측 시간 5시30분)로부터 약 5시간30분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만 해도 우리 측 개성공단 입경(68명)·출경(132명) 계획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근로자들과 자재·장비 철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입경 마감 시간을 불과 30분 앞두고 돌변해 남측 인원 추방, 자산 동결, 공단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우리 측은 관리위원장 주재로 현지 우리측 주재원 전체회의를 소집

했으며, 귀환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했다. 이날 오후 6시경에는 이를 토대로 북측과 구체적인 입경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오후 7시30분경 우리 측은 북측 총국에 주재원 280명 전원 퇴출에 대한 명단 및 입경 계획을 통보했다. 우리 측 주재원들은 오후 8시부터 집결했고, 2개 조로 나뉘어 오후 11시5분까지 모두 귀환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 것은 2004년 첫 가동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인원을 인솔한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철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등 중요 물품을 가져나 오고 싶어했지만 잘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토지사용료, 미수금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오후 5시(남측 시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은 전면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북측이 동결한 자산은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우리 측 인원은 대부분 개인 소지품만 들고 귀환했다.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2년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같은해 4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 4841억원(투자액 기준)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면서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우리 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 남측 인원 귀환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전기도 이날 오후 11시53분부로 중단됐다.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면서 평화변전소도 동결 조치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경기도 문산 변전소에

서 개성 평화 변전소로의 송전을 중단하면서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3만~4만 kW 정도의 전기가 즉시 끊겼다. 2013년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을 당시에 정부는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이번에 단전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공단은 완전 폐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용수도 공급되지 않아 자연스럽

게 단수까지 이뤄진다.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700명, 우리 측 근로자는 800명 수준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측 기업은 총 124곳이었으며 이들 기업이 생산한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약 6000억원)를 돌파했다. jinhk@news1.kr



개성공단 잔류인원과 짐을 싣은 차량들이 11일 경기도 파주 통일내교를 나오고 있다

##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차단... "공단 가동 후 처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11일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완전 단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 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밤 11시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한전은 경기도 문산 변전소를 거쳐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에 전

력을 보냈다. 평화변전소의 총 용량은 10만kW로 한전은 평소 3만~4만kW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억9100만kWh의 전력을 공급했다. 지난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도 정부는 평소의 10분 1 수준인 약 3000kW 전력을 보낸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측이 폐쇄했을 때도 적은 양의 전기를 보냈고 단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발표를 한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Hammond Residential

##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hn Bae (배 경은)

617-981-1542

Uchiyama (우치야마)

508-641-8924

WELLESLEY ... \$ 1,249,000

NEEDHAM ... \$ 739,000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12TH - FEB. 18TH, 2016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b>CJ Cooked White Rice</b> CJ 햅백 박스 7.4oz. x 12ea./box <b>\$14.99</b> <small>SMART CARD ONLY</small>	 <b>NONGSHIM Shin Ramyun</b>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b>\$9.99</b> <small>SMART CARD ONLY</small>	 <b>KWANGDONG Herbal Tonic Drink</b> 광동 쌍화탕 3.3fl.oz. x 10btl./box <b>\$4.99</b> <small>SMART CARD ONLY</small>
---	---	--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b>Korean Singo Pear</b> 한국산 신고배 박스 <b>\$24.99</b>	 <b>Koimo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b>\$1.49</b>	 <b>Ginger</b> 생강 <b>\$1.29</b>
 <b>Dried Persimmon</b> 곱감 <b>\$4.99</b>	 <b>JINGA Tofu</b>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b>\$0.99</b>	 <b>Fuji Apple</b> 후지 사과 <b>\$1.49</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Beef Tenderloin (Whole Piece)</b> 소 안심 <b>\$8.99</b>	 <b>Sliced Beef Rib Eye Roll for Bulgogi</b> 냉동 소불고기 <b>\$6.99</b>	 <b>Beef Top Blade Steak</b>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b>\$7.99</b>
 <b>Skin-On Pork Sheet Belly Chunk</b> 껍질있는 수육용 삼겹살 <b>\$5.99</b>	 <b>Bonless Chicken Breast</b> 뼈없는 닭가슴살 <b>\$2.49</b>	 <b>Marinated Sliced Pork CT Butt</b> 양념 돼지 목살 <b>\$5.99</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Rainbow Trout</b> 무지개 송어 <b>\$5.99</b> <small>FRI/SAT/SUN ONLY 12/13/14 ONLY</small>	 <b>Salted Yellow Croaker</b> 자반 참 굴비 <b>\$6.99</b>	 <b>Milkfish</b> 밀크피쉬 800up <b>\$2.99</b>
 <b>TONG TONGBAY Pollok Fillet</b> 통통배 동태 전갈 2 lbs./pkg. <b>\$3.99</b>	 <b>GLOBAL Unagi Kabayaki</b> 글로벌 우나기 6oz./pkg. <b>\$4.99</b>	 <b>TONG TONGBAY Oyster</b>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b>2\$5.99</b>



**Cupcake / 컵케이크**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b>Kyong Gi Medium Grain Rice</b> 경기미 40 lbs. <b>\$29.99</b>	 <b>NISHIKI Medium Grain Rice</b> 니시키 쌀 15 lbs. <b>\$14.99</b>	 <b>PULMUONE Nature's Delicious Non-fried Ramyun Noodle</b> 풀무원 자연은 맛있다 생라면 All Varieties/ 3.6 - 3.7oz. x 4ea./pkg. <b>\$4.99</b>	 <b>CJ Dasida Beef Flavor Soup Stock</b> CJ 쇠고기 다시다 2.2 lbs. <b>\$9.99</b>
 <b>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b>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b>\$9.99</b>	 <b>CHORIPDONG Coarse Sausage</b> 초립동이 통통한 비엔나 소세지 8oz. <b>\$2.99</b>	 <b>AJINO MOTO Gyoza Dipping Sauce</b> 아지노모토 교자 소스 10fl.oz. <b>2\$5</b>	 <b>ORION Tiramisu Soft Cup Cake</b> 오리온 티라미슈 9.73oz. x 12ea./pkg. <b>2\$5</b>
 <b>KüHAUS Electric Mini Creamic Heater</b> 호라이즌 유기농 저지방 초코우유 HORIZON Organic Chocolate Lowfat Milk 8fl.oz. x 12ea./box <b>\$10.99</b>	 <b>KOTO Elec. Shabu Shabu Pot</b> 고토 전기 전골 냄비 XJ-12202/ea. <b>\$32.99</b>	 <b>ZOJIRUSHI Electric Rice Cooker &amp; Warmer</b>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TSC10/ea. <b>\$129.99</b>	 KüHAUS Electric Mini Creamic Heater <b>\$22.99</b>

[www.HelloHome.com](http://www.HelloHome.com) **GRAND OPENING**  
 Your one-stop online shop for all your houseware needs!  
[hellohome.com](http://hellohome.com) 웹사이트에서 주방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하세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업체 배상·보상은 막막

남북경협 전문가들 "정부가 피해 회복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째인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에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거나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과 법제정비 등 북한 관련 업무 전문가인 A변호사는 "선례에 비춰볼 때 입주기업들이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한 업체는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허가하지 않는 '5·24조치'를 내리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천

안함 사태에 대해 정부가 '5·24조치'를 내린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가 입을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업체와 평양에 방직공장을 세우고 옷감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한 업체는 2008년 평양에 공장을 준공했다. 그런데 그해 7월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 사망 사고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했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정부가 방북을 승인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방북 불승인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여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한 정부의 조치가 불법행위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인정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인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 따른 경협 기업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실보상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과거의 사례와 달리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변호사는 "기업들의 잘못없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

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든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북경협 전문가인 B변호사도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은 물론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dandy@news1.kr



11일 개성공단 한국 기업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발표를 했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 북핵 해법인지 의문" vs "무력도발 악순환 끊는 계기"

개성공단 중단두고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서울=뉴스1) 정재민, 윤수희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날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나선 정부의 대응을 두고 사회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한편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실질적 대책 없는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한 진출 기업이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 이들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불안한 정세에 국민의 불안감도 커져 경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북 제재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 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이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는 군사화 행동은 예외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강경 대응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 모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으며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무력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거듭된 국제사회와 우리의 경고에도 1월 핵실험 강행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을 존중한다"면서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 남북교류 상징 개성공단 끝내 사라지나... 16년 역사 돌아보니

16년 전인 2000년 출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개성공단은 16년 전인 2000년 출범했다.

2000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공단 개발을 제안했고 뒤 이어 현대그룹과 북한은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공사는 2003년 6월부터 시작됐다. 2004년 6월 준공식이 열렸고, 같은해 12월 한국 기업 리빙아트가 '통일냄비' 1000세트를 생산한 것으로 공단 조업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은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이 토지와 인력을 제공해 운영되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내내 부침을 겪었다.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굵직한 남북 갈등 사태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이 남북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한 근로자 한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풀려났다.

특히 2013년 5월에는 북한이 남

북 당국 간 회담을 거부하자 130여 일 간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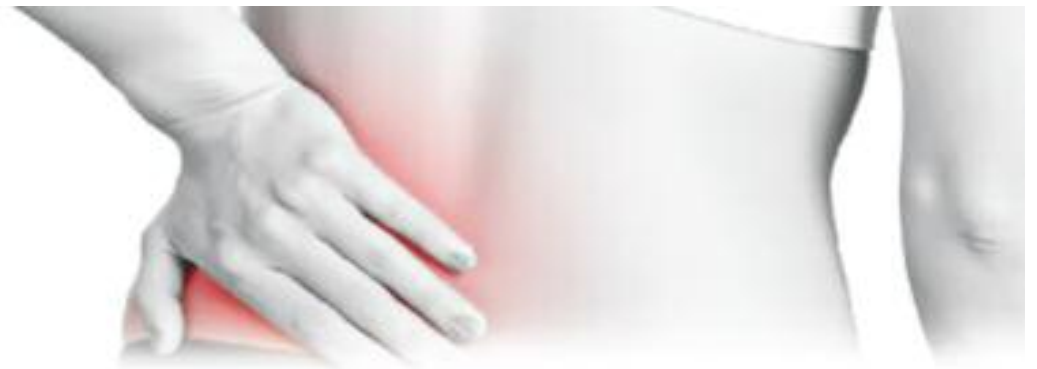
가까스로 같은해 9월 재가동된 개성공단은 2013년에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 입주기업은 18개였지만 현재는 124곳까지 늘었다. 북한 근로자도 6000여명에서 5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연초부터 무력 도발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살얼음판 속에서도 존속되던 개성공단이 또 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 수준인 650명으로 조정한 데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에는 500명까지 추가 축소했다.

그러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이에 대한 여론 역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찬성과 우리의 손해가 더 크다는 반대로 팽팽히 갈리고 있다.

eriwhat@news1.kr



#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현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척, 허리 디스크, 관절염 <외근보형> 학생보형, 여행자보형, 개인보형 PPO, 상해보형



**원장: 윤창**  
Dr.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틀리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크리닉 원장  
네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톤 노스어스틴 물리치료학 박사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료 체크계좌
- 모바일 뱅킹
- 온라인 자금 관리 서비스
- 모기지
- 상업용 부동산 대출
- 사업 및 투자 대출

울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 사드 배치 남은 절차는...이르면 총선 전 배치 최종결정

실무단 가동 뒤 부지선정 논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최종결정 발표  
총선 넘어가면 사드 반대론 고개 가능성...안보위기감 속에서 속도낼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총선 전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일단 한미 공동 실무단을 위한 첫 회의의 일정을 잡는 것이 먼저"라며 "이후 사드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실무단은 우리측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미국측에서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지 선정 문제가 양측 간 논의의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3월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대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해당 지역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미군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지 외에도 비용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부지제공은 한국측이 그외 사드의 전개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 부담금 성격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한미 실무단 협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지선정과 비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최종적 결정만이 남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 군 당국자는 "정해진 바 없으며,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협의를 오래 끌수록 사드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안보 위기감이 조성된 최근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나 가야 한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일단 사드배치 논의가 시작된 이상 질질 끌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얼렁뚱땅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협의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논의를 공식화한 것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올해 4월 총선 전이라도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관련한 여론과 직결돼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높아진 안보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총선 이후로 사드 논의가 넘어갈 경우 다시 사드 반대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사드 문제를 둔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목도 사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중관계 회복하는 데 외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1981@news1.kr



9일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페어링 부분. 이 페어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 제주 서남방 해역에서 발견됐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개시를 언급하고 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조속히 협의... 1~2주내 배치는 아냐"

미 '사드 배치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주장에 반응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 측은 "조속히 배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9일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세부평가, 적정 부지의 선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 배치 준비시간도 공동 실무단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조속히 배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며칠 안에 이뤄질 것이며 (사드 배치)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최종 결정되면 이르면 1~2주일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는 구체적인 협의·배치 일정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수주내 배치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jinhk@news1.kr

##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 압축판...할로는?

정부, 연일 고강도 조치...미일도 고강도 독자제재 내놔  
중러와 대치 심화...냉전구도에 한 '최대 피해자'될 가능성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와 개성공단 폐쇄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미가 주도하는 사드 논의와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중러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양자차원의 대북제재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간 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에 정부가 사실상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따른 강경한 압박 기조를 세운 미국과 일본도 양자 차원의 강경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상원은 10일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평가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 국민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 대북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한미일의 이같은 단합된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가 고강도 대북제재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러 없이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북한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펼쳤다. 특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쳐온 우리로서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대북 자렛대 역할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중러와의 관계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김정은 주중 한국대사와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초치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사드 배치 논의를 비롯한 정부의 한미일 밀착 외교를 두고 한반도를 또다른 미중 패권경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사드 카드를 꺼내면서 더이상 한미관계와 한중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드 공론화는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와 무역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미국과 밀착하는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관측되면서 한국이 냉전 구도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ej86@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븐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마케팅  
**홍은희**

# 명절 후 이혼신청 증가..평소 쌓인 스트레스 명절 후 폭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30대 A씨 부부는 명절을 어디서 보낼지를 두고 평소 자주 다투었다.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 남편 A씨가 "당연히 우리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아내 B씨는 "나도 우리집 딸인데 명절 때마다 시댁에만 간다"며 화를 냈다. 결국 B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집에서 설을 보냈고 연휴가 끝난 후 부부는 "역시 대화가 안 된다"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40대 후반의 C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처가에 들렀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모처럼 들른 처가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부인을 고생시킨다"며 면박을 줬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직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불화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2012~2015년 7건의 설·추석이 포함된 달과 그다음 달 전국 법원의 협의이혼 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명절 다음 달이 전월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이 낀 2012년 1월의 협의이혼 건수는 1만38건이었으나 2월에는 1만1511건으로 1473건(14.67%)이 증가했다. 추석이 있는 그 해 9월에는 9660건이 접수됐는데 10월에는 1만2159건으로 2499건(25.87%)이 늘었다.

2013년에는 2월 설 즈음엔 1만719건, 설 다음 달은 1만1456건이 접수돼 역시 737건(6.87%)이 많아졌다. 추석 즈음인 9월에는 1만215건이었으나 추석 다음 달엔 1만2150건으로 1935건(18.94%) 증가했다.

2014년에도 설을 전후해선 1만439건에서 1만1877건으로 1438건(13.77%) 늘었고, 추석이 낀 9월 1만1291건에서 10월엔 1만1350건으로 59건(0.52%) 늘었다.

2월에 설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월 8567건에서 3월 11406건으로 무려 2839(33.13%)건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평소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명절을 거치면서 표출됐다고 분석한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

명절 스트레스가 쌓인 부부들이 명절을 보내고 난 뒤 평소 담아두고 있던 불만까지 겹쳐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명절 직후 이혼 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위원은 "명절을 지내면서 감정이 폭발해 부부간 대화부재나 가족 갈등이 터져

나와 욕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햇김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분들이 상담을 통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은 명절 직후 늘어나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2013년 설 명절부터 4년째 전문가 상

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에는 가족상담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상담가가 참여한다.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명절 전후 각 5일간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dandy@news1.kr



최종일 대사 국정원 3차장 내정자

## 국정원 3차장에 최종일 대사... 1~3차장 모두 교체

육사34기, 국방정보본부장 역임한 정보 전문가 북핵·미사일 위기 따른 국정원 차장단 전원 교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정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62) 주 레바논 대사를 발탁했다.

최 신임 3차장은 동두천고와 육군사관학교(34기)를 나와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사단) 부사단장, 육군7사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 1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을 역임한 안보 및 정보 전문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리를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시기에 투철한 안보의식과 사이버, 영상 등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해 국정원 3차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정보원 1차장에 김진섭(58)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을, 2차장에 최윤수(49)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는데 이어 이날 3차장을 내정함으로써 국정원 1·2·3차장에 교체인사를 마무리했다.

이같은 국정원 차장 전원교체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달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른 교체인사로 보인다.

또한 한기범 전 1차장과 김규석 전 3차장은 지난 2013년 4월, 김수민 전 2차장은 2014년 5월에 임명돼 조직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birakoca@news1.kr

## 인문학 박사 37%가 임시직...42%는 연봉 2000만원 미만

2015년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 조사...상용직 줄고 임시직 늘어

인문·예체능·자연계열 박사만 연봉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의 취업률이 늘었지만 상용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늘었다. 특히 인문학 박사는 취업자의 37%가 임시직이었고, 42%는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5년 2월과 2014년 8월에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9179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76.4%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4년 조사 때의 75.5%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인문계열이 2014년 73.1%에서 2015년 77.3%로 취업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4.2%P). 예술·체육계열은 3.8%포인트, 사회계열은 2.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연계열 박사의 취업률은 1.7%포인트 감소했고, 공학계열도 0.3%포인트 줄었다.

취업률 자체만 봐도 학부 졸업생과 달리 인문·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보다 높다. 국내 신규박사의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교육·사범계열이 85.8%로 가장 높았고 의약이 83.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 82.5%, 예술·체육 82.1%, 인문 77.3%, 공학 72.4%, 자연 64.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질은 정반대이다. 임시직 비율은 인문계열이 36.6%로 가장 높았다. 취업자 중 임시직 비율은 자연계열 33.5%, 예술·체육 32.6%, 교육·사범계열 21.8%, 사회계열 18.7% 순이었다. 공학계열은 임시직 비율이 18.0%로 가장 낮았다.

상용직 비율이 줄고 임시직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은 전계열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추세이다. 취업했거나 확정된 새내기 박사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2014년 68.9%에서 2015년 66.2%로 줄었다. 거꾸로 임시직은 18.1%에서 23.1%로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4.0%에서 60.2%로 감소했다. 풀타임 비정규직은 23.0%에서 26.4%로 늘었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12.1%에서 13.4%로 증가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박사 후과정(39.3%), 전업 시간강사(36.3%) 등을 말한다.

평균연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연봉을 물었더니 45.1%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5.3%로 많은 편이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비율은 2014년 48.3%에서 3.2%포인트 감소하고, 2000만원 미만은 14.2%에서 1.1%포인트 늘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취업한 인문학 박사의 42.1%는 연봉이 2000

만원도 되지 않았다. 예술·체육분야 박사 중에서도 연봉이 2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 박사도 17.2%는 연봉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60.3%, 52.4%, 41.1%로 다른 계열에 비해 높았다. 다른 계열에 비해 임시직 비율이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능원이 지난해 정책연구로 진행한 '박사조사(2015)-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실렸다.

연구책임 맡은 송창용 직능원 선임연구원은 "취업률 자체는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시직이 많아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전계열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대학 교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부설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률은 늘었지만 평균연봉은 줄어 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 김무성 vs 이한구, 정반대 '공천 방식' 공방...연일 전운

계파전 긴장감 수직상승...김 "공관위는 관리만" vs 이 "시원찮은 현역 바꿔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11일 20대 총선 후보자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현역 물갈이' 칼바람이 점차 휘몰아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물밑 전선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에서의 현역 배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연일 충돌하는 것이 당내 긴장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현역 저성과자 공천 배제"를 언급하며 물갈이를 예고했고, 즉각 김 대표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비 박계는 집단 연판장을 내고 이 위원장의 공관위 운영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다 김 대표가 이날 이 위원장을 면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이 위원장은 물러섬이 없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과가 시원찮은 현역 의원들을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보다 더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면서 "부적격자 공천 배제는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다"고

못박았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 대표는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2014년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를 주장한 뒤, 관련 작업을 위해 구성된 당헌당규 개정특위의 위원장을 이 위원장이 맡았던 점을 거론했다.

과거 상향식 공천인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에 참여해놓고 이제와 판소리냐는 얘기였다.

김 대표는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공약한 점, 당보 수혁신특위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차례로 상기시키면서 "정치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당론으로 확정되고 최고위원회의 결까지 거친 상향식 공천 하에서 공관위는 틀대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의 후기 자들과 만나 "공천제도 특위에서 다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물은 공관위가 해야한다"며 "추상적인 부적격 심사는 피해야 하지만, 부적격자를 알면서

도 경선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월급만 촉낸 의원" "우리 당인지 저쪽 당(야당)인지 모를 사람들" 등을 부적격자의 예로 들었고,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도 "충분히 (부적격자로) 의심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훌륭한 새 인물을 최

대한도로 영입해야 하고, 영입은 최고 위가 맡아줘야한다"며 "공관위는 외부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영입된 인재라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김 대표의 생각에 반기를 든 것이다.

eriwhat@news1.kr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한구 위원장 앞을 엿갈려 지나가고 있다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기로운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Udonchil list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od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미와 적어보 손상에 지리없는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7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개국된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쏘레오빌 머리 대응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l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총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영양대성경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향  
7 Clomo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Broker/Owner of RE/MAX

www.ganai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6, (978) 944-3404  
www.bostonkorean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링컨 프로  
s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리에 따라 언제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진심, 온전, 진내, 사랑, 온전, 부패함에 멸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유대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지사부터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Efit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ader를 통해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결제형태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UMS 비즈니스사 영업팀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에 National Grid와 συνεργασία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ader를 통해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약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절약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slp-seon.com



#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



**박소나**  
변호사



**Yoon Wa**  
공익연수생



**박경명**  
서기관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 숫자로 보는 패트리어츠 2015 시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2015 정규 시즌에서 12승 4패를 기록,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AFC 챔피언 경기에서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비록 수퍼볼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번 연속으로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패트리어츠의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는 숫자들을 살펴보자.

3: 디펜시브 엔드 캔들러 존스는 9월 20일 빌스와 경기에서 3개의 색을 기록했다. 존스의 한 경기 최다 색이다. 2015년에 존스는 4번의 경기에서 2개 이상의 멀티 색을 기록했다.

4: 스티븐 고스토우스키는 지난 시즌 4번의 온사이드 킥을 성공했다. 한 시즌에 4번이나 온사이드 킥을 성공시킨 건 패트리어츠 팀 기록이다.

4: 패트리어츠는 역대 NFL팀 중 4번째로 수퍼볼 디펜딩 챔피언이 10승 0패, 혹은 그 이상의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패트리어츠 이전에는 패커스(2011, 13승 0패), 브롱코스(1998, 13승 0패), 나이너스(1990, 10승 0패)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시즌 초반 10승 이상을 거두었다.

5: 랍 그롱코스키는 2015 시즌에 100야드 이상의 경기를 5번 가졌다. 한 시즌에 타이트 엔드가 100야드 이상 경기를 가장 많이 기록한 건 6번으로 토니

곤잘레스(2004, 2000)와 지미 그램(2013)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6: 2015 패트리어츠는 NFL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쉬는 시즌을 6번 연속으로 가졌다. 이전 기록은 4번으로 나이너스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브롱코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다.

9: 패트리어츠는 9월 27일 재규어스와의 경기에서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 쿼터백이 무릎을 경기장 바닥에 대기 전까지 9경기에서 매경기 첫 드라이브에 득점을 했다. 패트리어츠 팀 최다 기록이다.

11: NFL이 지금과 같은 플레이오프 방식을 1990년에 도입한 이래 패트리어츠는 가장 많은 11번, 첫 주에 휴식 기간을 가졌다.

15: 패트리어츠는 15시즌 연속으로 같은 지구에 소속된 팀에게 한 시즌에 2패를 당하지 않았다. 1970년에 NFL로 통합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기록이다.

16: 패트리어츠는 2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 득점을 하고, 연이어 3쿼터 첫 드라이브에 득점을 하는 전후반 연속 득점을 2009년 이후 16번 기록했다. NFL에서 가장 많은 횟수이며, 세인츠가 14번으로 그 다음이다.

21: 패트리어츠는 홈 경기에서 같은 디비전 소속이 아닌 AFC 팀을 상대로 21연승을 기록 중이다. 같은 디비전이



패트리어츠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 패하며 2015 시즌을 마감했다

아닌 AFC 팀에게 홈에서 마지막으로 진출한 2008년 11월 30일, 스틸러스와의 경기였다.

38: 패트리어츠는 9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38쿼터 연속 득점을 올리며 NFL 신기록을 세웠다.

41-1: 2000년 이후 패트리어츠는 100야드 이상 러싱 야드를 기록할 때 4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빌 벨리치 감독 체제에서 100야드 이상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도 진출한 경기는 2004년에 돌핀스를

상대로 29대 28로 패한 경기다.

45-11: 재조정이 있었던 2002년 이후 패트리어츠는 NFC 팀과의 경기에서 45승 11패를 기록 중이다. 다른 컨퍼런스와의 승률은 패트리어츠가 NFL에서 가장 높다.

57: 고스토우스키는 10월 11일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 57야드 필드골을 성공시켜 패트리어츠 역대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64: 브래디와 그롱코스키는 6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다. 쿼터백-타이트 엔드 기록으로는 NFL 역사상 2번째로 많은 횟수다.

81: 패트리어츠는 홈 경기에서 전반전에 이기고 있으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81연승 중이다. NFL 최고 기록이며, 패트리어츠가 홈에서 전반에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마지막 경기는 2000년 12월 24일 돌핀스와의 경기다.

jsi@bostonkorea.com

## [MLB] 여유 되찾은 '끝판대장' 오승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각오다."

(인천공항=뉴스1) 이재상 기자 = 해외원정도박 파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끝판대장'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이 마침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옵션 포함 최대 1100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오승환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떠났다. 그동안 비자 문제로 출발이 늦어져 마음고생이 있었으나 이날 오승환은 특유의 '돌부처' 표정을 유지하며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2014년 삼성 라이온즈를 떠나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한 오승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무대도 평정했다. 오승환을 상징하는 '돌부처'를 통해 2014년 39세이브(2승4패)를 쌓았고, 지난해에도 41세이브(2승3패)로 2년 연속 센트럴 리그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러나 오승환은 지난해 말 해외원정도박 파문에 휘말리며 선수 생

활 최고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말 폭력조직 출신 이모(39·구속기소)씨가 임대운영하는 마카오 고급카지노 VIP룸(속칭 '정킵방')에서 4000만원 가량 바카라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승환을 단순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승환이 한국에 복귀할 경우 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72경기)의 제재를 내렸다.

다행히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오승환은 광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13일 국내에 귀국,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오승환은 큰 무대로 떠나기 앞서 '초심'을 강조했다. 오승환은 "야구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

다. 팬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붙어 닦친 한파 속에서 국내서 훈련했던 오승환은 "겨울에 이렇게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한 적은 프로 와서 처음"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은 생소한 셋업맨으로 나설 예정이다. 팀 내 최고 마무리인 트레버 로젠탈 앞에서 7회나 8회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프로 입단 이후 줄곧 마무리로 활약했던 오승환에게는 다소 낮은 보직이 될 수 있다.

오승환은 "신인 때 잠깐 셋업을 한 적이 있지만 일단 마무리와 비슷한 느낌"이라며 "7~8회에 나가더라도 9회에 출전한다는 각오로 마운드

에 오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승환은 마지막으로 개인 성적에 대한 목표보다는 월드시리즈 등 큰 무대에서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월드시리즈를 통해 챔피언을 경험해보고 싶다"면서 "아프지 않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내 공을 자신 있게 뿌리겠다"고 밝혔다.

alexsei@news1.kr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오승환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940 sf.  
넓이업데이트 된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음,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경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스리 978-806-0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8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Choi 978-866-3248



\$1,800,000  
Lexington, MA  
5 beds, 4.5baths, 3800 sf.  
Custom built in 1991  
Modern house 5000sf.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7,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sf.  
New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94



\$560,000  
Boston, MA  
1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sf.  
좋은 가격의 저렴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 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y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Bed, 1 bath, 709sf.  
Jay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bath, 820sf.  
GinaChoi 978-866-3248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bath, 820sf.  
Gina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한인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 / 2009년 100% / 2010년 100% / 2011년 100% / 2012년 100% / 2013년 100% / 2014년 100% / 2015년 100% / 2016년 100%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Under Agreement Exclusive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Exclusive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b>Restaurant</b>  Exclusive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b>Restaurant</b>  Exclusive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Exclusive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Exclusive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Exclusive <b>센트랄 sq., 하버드 sq. 울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Exclusive \$115,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Exclusive SOLD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Nail Salon</b>  Exclusive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Exclusive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Drycleaner</b>  Exclusive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401-935-3397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995,000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Exclusive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a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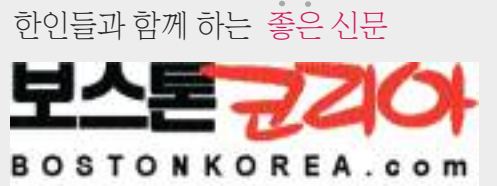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화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앨버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리엄드/엑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 (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퀵시온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9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홀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매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와)

**위치좋은 세탁소 매매**



NATICK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수선 포함) 매매합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

매매가격: \$63,000.00

Call: Renee Chakalos (Century 21)  
**617-256-550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20년째 KCC가게 발매는  
저렴하고, 최우수서비스 **대형병원 전문진료**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서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메디케어	4,200,000	4,700,000	5,200,000	5,800,000
대형병원	18,000,000	19,000,000	20,000,000	21,000,000
대형병원	22,000,000	23,000,000	24,000,000	25,000,000

**루트모발 이식센터**  
유명, 최우, 최강

10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수많은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공급/재류, 해외출국  
"특별 이벤트"

원격	대형	대형	대형	대형	대형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새미치과 특별할인**  
3월 6일까지 100% 할인

치과	120원
치과	60원
치과	20원 + 10원

고국에서 진료하고, 진료비도  
인원으로 사별하는데  
환자에게만 100% 환급을 해드립니다.

**메디그 엑스레이 특별할인**

엑스레이	15원
엑스레이	16원
엑스레이	20원
엑스레이	26원
엑스레이	30원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장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 '태양의 후예' 메인 예고 공개 재난 현장에서 꽃핀 멜로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태양의 후예' 속 재난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5일 KBS2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연출 이응복) 측이 공개한 메인 예고편에서는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뉴스 앵커의 멘트에 이어 붕괴되는 건물 사이로 대피하는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들의 모습이 긴박하게 펼쳐졌다.

앞서 '태양의 후예' 측은 '그 여자, 그 남자 이야기' 영상을 통해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 분)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두 남녀가 밀고 당기는 찜을 보여줬다. 김은숙 작가만의 청량감 넘치는 쿨한 대사는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 커플)의 달콤한 멜로에 기대감을 더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는 '그 여자, 그 남자 이야기'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 갑자기 닥친 강도 높은 지진, 지반이 붕괴되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전 군인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라는 군인 유시진과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의사 강모연의 내레이션은 두 사람이 가치와 목표가 대립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냐. 둘 중 누구 죽이고 살릴지"라는 엔딩은 '태양의 후예'가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제작진은 "'태양의 후예'는 극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순간에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류애를 그리고자 한다"며 "새로운 볼거리와 재미, 다양하고 깊이 있는 스토리로 2016년 시청자들에게 좋은 울림을 전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100% 사전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영된다. 오는 24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poolchoya@news1.kr

## '그레 그런거야, 진짜 정통 가족극이 온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그레, 그런거야'가 진짜 정통 가족극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그레, 그런거야'는 3대에 걸친 대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릴 예정이다. '언어의 마술사'로 불리는 김수현 작가의 새로운 작품으로 60부작으로 기획됐다. SBS는 이 작품을 위해 주말 밤 9시대 드라마를 부활시켰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인 만큼 많은 배우들은 출연 자체가 영광이라는 발언을 했다. 윤소이는 어릴 적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보고 배우를 꿈꿨다고 했으며 신소율은 캐스팅이 오기를 기대했다고 했다. 서지혜는 "배우를 할 때 꼭 거쳐가야 하는 작가님이라는 애기를 많이 들어서 욕심이 났다"고 했으며 남

규리는 6년 전 첫 드라마로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하고 연기의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김수현 드라마의 단골 출연자이자 가장 어른인 이순재조차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레 그런거야'는 스토리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관록의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는 만큼 젊은 배우들도 채찍질을 받고 한층 성장한 연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젊은 배우들 역시 '그레, 그런거야'는 '선생님들의 어벤져스'라며 많이 혼나면서도 많이 배우겠다는 각오를 전달했다.

'그레, 그런거야'는 오는 13일 저녁 8시45분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 '배우학교', "로봇연기" 장수원? 진화 시작된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로봇연기'의 창시자 장수원이 '배우학교'에서 눈물 흘린 사연이 공개된다.

11일 밤11시 방송되는 tvN '배우학교' 2회에서 장수원의 연기 성장 스토리가 그려진다.

그간 장수원은 몇몇의 작품을 통해 감정이 없는 듯한 연기를 선보여 일명 '로봇연기'라 불려왔다. 실제 연출을 맡고 있는 백승룡 PD는 "'배우학교'를 기획했을 때부터 '미생물'을 함께한 장수원이 떠올랐다. 실제 '배우학교'에 장수원이 먼저 출연의사를 밝히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여줘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다"고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또 제작 초반 장수원의 '배우학교' 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정도로 '로봇연기' 장수원의 변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원 역시 '배우학교' 제작발표회에서 "기초부터 연기를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연기

자가 되겠다"고 남다른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장수원은 그간 '로봇연기', '발연기'라 불렸던 심경을 털어 놓아 눈길을 끌 예정이었다. 그는 자기소개 시간에 "연기 재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전하며 "자신을 자꾸 억누르려는 성격이 있다"고 진솔한 고민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에 박신양은 1:1 연기 수업을 통해 장수원을 격려하고 실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 장수원의 연기 성장을 이끌어 나갔고 끝내 그를 변화시켰다는 후문이다.

'배우학교'를 연출하는 백승룡 PD는 "장수원은 정말 로봇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실제로 촬영 초반 자기 소개 이후 자퇴까지 결심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다. 2회에서는 '로봇' 장수원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일명 '로봇의 진화'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reddgreen35@news1.kr



## '로스타임' 봉태규, 떡 먹다 사망 '시작부터 죽음'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로스타임' 봉태규가 황당한 죽음을 맞았다.

10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예능드라마 '로스타임(이하 로스타임)'에서 윤달수 역을 맡은 봉태규가 시작하자마자 사망했다.

윤달수(봉태규 분)는 동생 윤달희(손담비 분)이 챙겨준 떡을 먹었다. 이는 부모님의 제사 음식으로 그는 방에서 떡을 먹다 목에 걸렸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윤달수는 "마치 100미터를 질주하듯 심장이 뛰고 산소가 부족하다. 죽는 건가, 다른 식으로 죽었다면 좋았을텐데"고 생각한다 저승사자를 만나게 됐다.

'로스타임'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기적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추가시간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따듯하면서도 유쾌한 톤으로 그린 작품이다.

축구경기의 로스타임과 우리네 인생이 결합된 독특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축구 심판진의 등장과 해설진들의 생



중계라는 기발한 포맷으로 기존의 드라마 형식을 완전히 깨뜨린 신개념 예능형 드라마이다.

lee1220@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2월 1일 ~ 2016년 2월 7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32.1%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1.6%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7.2%
4	MBC	주말드라마(엄마)	19.5%
5	KBS1	KBS9시뉴스	17.1%
6	SBS	드라마스페셜(리멤버아들의전쟁)	16.7%
7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6.5%
8	MBC	무한도전	16.5%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4.9%
10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14.7%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5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소리)
6	SBS	일일드라마(마녀의성)
7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8	KBS1	대하드라마(장영실)
9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단신)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2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3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ZICO)
04	Rain	태연
05	잊어버리지마 (Feat. 태연)	Crush
06	Dream	수지, 백현
07	OOH-AHH하게	TWICE
08	니가 하면 로맨스 (Feat. 다비치)	케이윌
09	또 하루 (Feat. 개코)	개리
10	I Miss You	마마무

## 숫자 퍼즐 (Sudoku)

				5		3	1
	3					9	8
	2			1		6	
			5	6	8		4
	1			9		8	
6			1	3	4		
	6			2		5	
1		3				2	
9	7		8				

2월 14일 - 2월 2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한번 돌아볼 필요가</b></p> <p>●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니 평소보다 먹는 것을 더 잘 챙겨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세요. ● 금전: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소띠   순간순간이 소중한</b></p> <p>● 운수: 자신을 가장 위해주고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원가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 금전: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보이기보다는 뭔가 허술한 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살다보면 지금처럼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순간순간이 소중한 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범띠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b></p> <p>● 운수: 처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 금전: 욕심이 나더라도 경제사정에 맞지 않는 투자나 지출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토끼띠   두뇌회전이 잘 되는</b></p> <p>● 운수: 두뇌회전이 잘 되는 때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크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욱 가까워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4, 19일 길일. 18, 20일 주의.</p>	<p><b>용띠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b></p> <p>● 운수: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따라주는 재물도 클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b>뱀띠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b></p> <p>● 운수: 눈에 보이는 성공스토리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자존심을 세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니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19일 길일. 14, 20일 주의.</p>
<p><b>말띠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b></p> <p>● 운수: 기쁜 일과 힘든 일이 교차되는 때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풍성한 시기이니 재물이 유리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은 계절 같은 것입니다. 한 철이 지나가면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결국에는 다시 오는 것처럼 사랑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4, 19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양띠   최선이 더 아름다운</b></p> <p>● 운수: 최고보다는 최선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 금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걸모습만으로는 그것의 속내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원숭이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b></p> <p>● 운수: 의욕만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전: 독불장군 식의 행동은 자신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구태여 상대를 지극해서 굶여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0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닭띠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b></p> <p>● 운수: 억지로라도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벌써부터 열매를 따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 애정: 한편으로는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b>개띠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b></p> <p>● 운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 금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전에 잃어 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거나 하는 등 뜻밖의 수확도 있겠습니다. ● 애정: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주도록 하세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돼지띠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b></p> <p>● 운수: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혼자서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알고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 '막영애'부터 '응팔'까지, tvN 10주년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tvN이 지난 8일부터 공개한 개국 10주년 기념 채널 ID 영상이 화제다. '팝업북'을 콘셉트로 구성된 이 영상에는 '막영애'와 '택시'부터 '응팔'과 '꽃청춘'까지 tvN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7개 프로그램의 출연자 30인이 대거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등장하는 출연자의 면면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 그 가운데서도 tvN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인 '막돼먹은 영애씨'와 '택시'의 김현숙과 이영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또 공개 코미디의 신기원을 이룩한 '코미디빅리그'의 유상무, 장동민, 장도연, 박나래, 양세형, 이국주, 황제성, 황철순과 생방송 코미디로 파격적인 재미를 선사한 'SNL 코리아'의 김준현, 안영미, 정성호, 정이랑, 강유미, 이세영까지, tvN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예능인들도 반가움을 더했다.

이에 더해 tvN의 신선한 기획력을 대변하는 예능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의 신동엽, 이현우, 황교익, 홍



신애와 '문제적 남자'의 전현무, 하석진, 김지석, 이장원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tvN의 콘텐츠 파워를 입증한 최고의 화제작 '응답하라 1988'의 이일화, 라미란, 김선영, 김설과 '꽃보

다 청춘'의 조정석, 강하늘의 존재감. 특히, 드라마 속 모습 그대로 등장한 '응팔' 출연진은 흥겨운 댄스와 함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reddgreen35@news1.kr



## 만인의 여자친구가 된 여자친구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이름따라 간다는 말이 있다. 걸그룹 여자친구가 이를 증명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여자친구는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싹쓸이한데 이어 최근 발매한 3번째 미니앨범 '시간을 달려서'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만인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이들의 1위가 더욱 값진 이유는 단순히 아이돌 팬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대중의 지지와 관심이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기획사 파워가 아닌 오로지 음악과 무대만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받으며 단계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친구의 대중적인 인기는 음원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자친구의 신곡 '시간을 달려서'가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랭킹돼 있는 것은 물론, 지난 7월에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오늘부터 우리는'는 현재까지도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너도 나도 섹시 콘셉트를 내세웠을 때도 여자친구는 자신들의 색깔을 잃지 않고 전매특허 콘셉트인 '파워청순'으로 대중과 만났다. 신인상 싹쓸이에 이어 음원차트 점령, 음악방송 1위까지 단계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친구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lee1220@news1.kr

## '해투' 소유진 "백종원 회식 해도 밤 10시면 들어와"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소유진이 백종원이 항상 일찍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

소유진은 11일 밤 11시15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있다 와도 이해할 수 있는데 10시면 온다"고 말했다.

소유진은 "나도 영화 좀 보고 싶은데 단 하루도 11시를

넘어본 적이 없다"며 백종원이 꼬박꼬박 일찍 들어온다고 밝혔다.

백종원은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촬영장으로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소유진은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보냈더라. 그런 이벤트를 안 하는데"라며 당시 감짝 놀랐다고 했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mailto: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IA & NY) • BOA08 - GGT - LMS AP  
IA REALTOR • I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추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mailto: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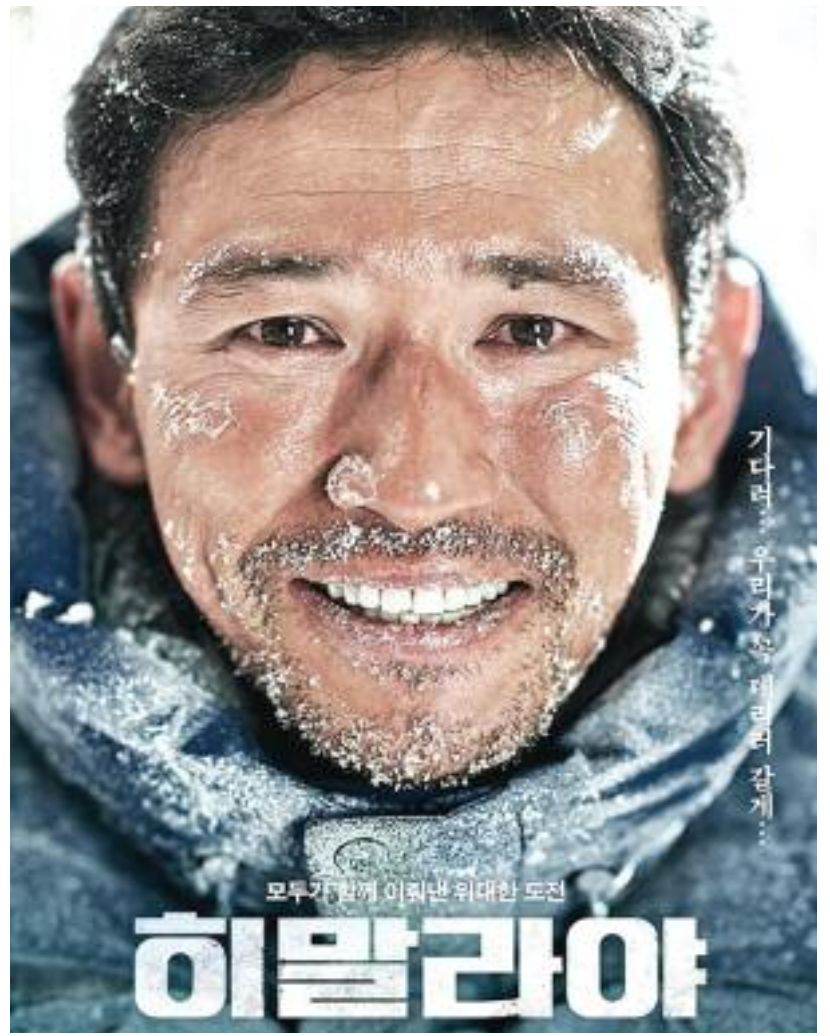
### '히말라야' 자연 앞에 선 원정대의 뜨거운 동료애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히말라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된 황정민은 촬영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처음엔 도대체 거길 왜 가는지 이해 못했다. 두 발자국 걸으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데"라며 동료들과 함께 하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순간들을 떠올렸다.

일편단심 산사나이 박무택 대원을 연기한 정우는 "자연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누구도 모를 일 아닌가.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하 컸다"며 '히말라야'의 힘겨웠던 여정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얘기했다.

의리와 원정대원 박정복 역의 김인권, 원정대의 흥일점 조명을 연기한 라미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았다", "충격적이었다"며 처음이기에 더욱 두렵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전했다.

또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를 연결한 로프에 의지한 채 목숨 건 등반을 하는 원정대원들과 엄홍길 대장의 강인한 모습은 험난하지만 가슴 뜨거운 여정을 기대하게 한다.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의 영역,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도전에 임하며 함께 울고 웃는 원정대원들의 끈끈한 우정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라고 다짐하는 엄홍길 대장의 진심 어린 표정은 보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aluem\\_chang@news1.kr](mailto:aluem_chang@news1.kr)



- ####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3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4  | MBC | 최고의 연인        |
| 5  | MBC | 내일도 승리        |
| 6  | SBS | 마녀의 성         |
| 7  | KBS | 육룡이 나르샤       |
| 8  | KBS | 장영실           |
| 9  | MBC | 아름다운 당신       |
| 10 | MBC | 천상의 약속        |

- ####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배우학교     |
| 2 | CJ E&M | 갯잇뷰티2016 |

- ####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히말라야 | 황정민, 정우 |
|---|------|---------|

### '갯잇뷰티' 이하늬, 내송제로 '꿀MC' 되기까지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갯잇뷰티' MC를 맡은 배우 이하늬가 복고댄스부터 깨알연기까지 특유의 털털한 매력으로 명불허전, 믿고 보는 꿀언니 이하늬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지난 10일 밤 9시 방송된 온스타일 '갯잇뷰티 2016' 응답하라 갯잇뷰티 편은 뜨거웠던 복고 열풍에 힘입어 80, 90년대 유행했던 메이크업을 2016년 버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늬는 디스코 춤으로 등장하여 스텝

디오 분위기를 초반부터 업 시키더니, 황민영을 사이에 두고 김정민과 선보인 신과 콩트 연기를 선보이는 등 보는 이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었다.

뷰티 플레이어들은 각자 브룩셀즈, 김혜수, 박남정의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 과거에 크게 유행했던 메이크업 제품들을 직접 가지고 와 80, 90년대에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특징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을 향수에 빠지게 만들었다.

[redgreen35@news1.kr](mailto:redgreen35@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공백**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5만~7만. Asking **\$20,000**
7.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허빙,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3회

'마담 앙트완' 그리고 심리로맨틱코미디...

무엇보다도 아줌마들의 수다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드라마 얘기이다. 이런 척 저런 척 제 아무리 척을 해도 상대방의 얘기를 알아들 수 있어야 대화가 통하지 않겠는가. 한국방송의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동네 친구들과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드라마 얘기로 흐른다. 그것이 그럴 것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조금은 허전하고 심심할 때의 나이가 지금의 오십 초중반의 나이인 까닭이다. 남편의 내조와 자식 뒷바라지 그리고 직장의 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철인으로 자신을 돌아볼 틈 없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중년의 여성 자랑스러운 이름이여!

여하튼, 갱년기의 시작과 폐경이 맞물린 시점이랄까.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하고 깊은 생각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당황감에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도대체 난 지금까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작 누군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 물음의 대답이 궁색해지는 그 쓸쓸함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구차하게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그 아픈 마음 생체기로 남은 속마음을 얘기는커녕 들길까

싶어 숨어두고 주눅이 드는 것은 가족의 탓이 아닌 나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탓인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 이곳저곳 여기저기 특별히 다른 것이 뭐 있을까마는 그래도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타국 멀리 떠나온 이들은 남다른 가슴 한 칸에 그리움을 담고 산다. 가족 모두 이민을 온 이들이라면 다행이지만, 특별히 남편따라 이민을 오게 되거나 중매결혼으로 미국에 왔거나 유학을 왔다가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니 그 누를 탓하고 원망할까 마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씻을 수 없는 지병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둘 커 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쯤이면 갱년기라고 폐경이라고 하며 원하지 않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듯 불청객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다면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찌 됐든 남이 해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봐야 삶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마저 해보지 않고 나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서운한 일일 테니 말이다. 그래, 나 이 들어가서 좋은 것도 하나둘 늘어 가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렇다면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니 서운할 것도 섭섭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옛그제는 한국드라마 중 어느 것을 하나 골라 볼까 싶어 찾고 있는 중 '마담 앙트완'이란 드라마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리고 그 드라마 역을 맡은 주인공들의 얼굴과 이름을 보니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래, 그럼 한번 봐볼까. 드라마 시작과 함께 몇 회를 시청해 보니 심리로맨틱코미디로 중년에 오른 내 나이에 속을 확 풀어주는 데는 최고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마담 앙트완'에서 고혜림 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예슬이 사랑의 판타지를 믿는 가짜 점쟁이로 분한 것이다. 사랑에 빠져 얽히고설킨 여자들의 웃고 우는 심리를 실감나게 그려낸 드라마이다.

드라마보다는 다큐와 시사 프로그램을 더욱 좋아하지만,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을 더러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가끔 아줌마들의 수다에 킬 수 있으면 드라마 하

나 정도는 봐두는 것이 문화생활의 기본이라는 얘기가. 서로 그 어떤 모임에서든지 대화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누구와 만나 얘기를 나누느냐에 따라 대화의 주제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에 맞는 대화가 곧 관계의 폭과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에티켓이 아닐까 싶다.

편견은 가끔 사람을 위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편견의 잣대를 든 자신은 그 경계에서 왕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여기저기도 가지 못하는 아니 끼워주지 않는 외톨이 왕따 말이다. 나이가 어려서는 선부른 욕심에 편견도 하나의 필수가치쯤처럼 지닐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 나이 오십 줄에 들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쓸데없는 사치품이며 거추장스러운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나이 오십에 들며 갱년기를 맞고 폐경이 찾아와도 서럽지만은 않은 것은 이렇듯 버릴 것이 있어 가볍고 나눌 것이 늘어 넉넉해지는 것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처음처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 그의 글씨체와는 다른데, 잔잔했던 그의 목소리만 기억하는 터. 그가 햇빛을 몹시 그리워했던 모양이다. 좁은 감방에서 신문지 한장 만한 크기의 햇빛이 한 시간여 들었단다. 햇빛을 받는 짧은 시간을 위해 오랜 감방생활을 버릴 수 있었다 했다. 가슴이 먹먹했는데, 영화 뼈뼋음을 기억해 냈다. 햇빛을 막는 건 지독한 최악의 형벌이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상상할 수는 없다.

스타벅스 커피가 시애틀에서 출발했다는 건 알만한 이들은 안다. 출지는 않고 눈은 없다만, 우중중한 날엔 커피가 당겨온다. 시애틀에선 겨울철 햇빛이 귀하고 고맙다.

... 빨래를 거뒀 안고  
들어오며 서늘 며느리,  
아까워라 햇빛 냄새!  
...  
빨래 아람에 얼굴 깊게 묻었다  
향기로운 탄내, 햇빛 냄새!

(정진규, 햇빛냄새)

여름날 오후 햇빛 아래에서 아이들 머리에서 는 햇빛 타는 단내가 난다. 어릴적 내 머리에서도 났을게다. 지금이야 시큼털털한 중년 사내의 냄새가 풍길테지만 말이다. 이건 서양이나, 한국이나 어느나라 아이들에게도 차별없이 나는 냄새일지도 모르겠다. 햇빛은 빨래만 말리는 건 아니다. 햇빛은 세상 모든 어린 것들을 키운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해가 났으니, 오후엔 밖으로 나가야겠다. 겨우내내 얼굴에 피었을 곰팡이나 말리려 한다. 햇볕아래 걷다보면 얼굴에 난 검버섯도 데려갈 텐가. 얼굴 곰팡이를 말리고 나면 처음처럼 얼굴이 되살아 날까? 그건 모르겠다. 분명한 건 햇빛이 귀한 건 '처음처럼' 여전하다.

신영복 교수의 명복을 빈다.

'지혜는 유산 같이 아람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11)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다. 한차례 눈폭탄을 맞은 뒤끝엔 햇빛은 더 없이 빛난다. 젖은 눈송이는 눈꽃이 되어 햇빛아래 눈부시다. 온세상이 눈꽃에 덮혔다. 눈꽃을 설화雪花라 했던가. 햇빛은 봄을 당겨낼텐데, 온기溫氣도 데려온다. 온기에 눈꽃도 속절없이 진다. 입춘도 지났으니 봄이 저만치서 고개를 내민다. 착각인가?

처음처럼. 신영복교수가 썼던 글귀이고, 소주병 라벨에 붙어 있었다. 글귀가 술병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인상적이다. 그가 세상을 떠났단다. 마음이 개운치는 않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무슨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의 책을 단 한권 읽었고, 그의 글씨를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쇠귀. 소의 귀라는 말이다. 우이牛耳라하면 더

나을까. 우이독경이란 말이 더 귀에 익다. 소귀에 경經위이라는 말이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해석이다. 신교수가 썼던 호號가 쇠귀라 했다. 그러니 그가 지독히 고집스러웠던 게 틀림없다. 목소리는 낮았고 잔잔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건 굳어 있었다. 몸짓은 유연했는데, 서체에선 결기가 있어 예각銳角이었다. 구석기 시대 돌도끼마냥 둔탁해 보였으니, 오히려 고집스러워 보였다. 베이기 보다 내리쳐서 뽀갯듯 보였던 거다. 관우의 청룡도를 보는듯 하다고나 할까. 그가 돌도끼인가 쇠귀인가.

그는 고통스럽고 힘든 감옥살이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재주를 가졌다. 그의 글씨체와는 달랐다. 겸손한 듯 했으며 크게 소리치지도 않더라. 듣고 읽은 내 소감이다. 그래서 그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글귀와 말귀는 희미하

#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자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2016년 2월 16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1. 리틀 빅혼 강 전투와 카스터 (2)

시팅볼과 크레이지 호스에 의한 카스터 부대의 전멸 (계속)

리노의 소부대는 리틀 빅혼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인디언캠프의 남단을 공격하고 카스터의 소부대는 리틀 빅혼 강을 동편을 따라 북쪽으로 간 다음에 강을 건너 북단을 공격하고 벤틴의 소부대는 후방에 주둔하고 있다. 가필요시 지원군 부대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협공작전을 짰다.

리노의 부대가 동에서 서로 강을 건너와 오후 두 시 반 경에 인디언캠프의 남단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당초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놀라서 도망가는 대신에 수많은 인디언 전사들이 재빨리 거센 반격을 가해 왔다. 리노 부대의 병력은 약 140명이었던 반면에 인디언 전사의 규모는 900명이나 되었다. 당황한 리노는 부하들에 대한 전투 지휘도 제대로 못하였고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병대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해 놓고는 곧바로 말에 타라고 지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 리노의 부대는 얼마 버티지 못해 수세에 몰리게 되자 강을 건너 후퇴하여 벤틴의 부대(약 120명 규모)와 합류했다. 리노의 부대는 이 첫 교전에서 벌써 40명의 병사를 잃었다. 카스터의 소부대는 카스터를 포함한 전원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날의 전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인디언 측 전투참가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그날의 전투과정을 재구성해보지만 증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은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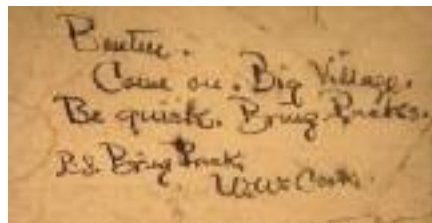


<리틀 빅혼 강(Little Bighorn River) 전투 개념도>

오후 세 시 즈음 강 건너 동쪽에서 인디언 캠프의 북단으로 접근하는 카스터 부대를 발견했다. 흥크파파 지파의 썬개(Gall) 전투주장은 바로 강을 건너 카스터 부대를 추격하고, 오글라라 지파의 크레이지 호스는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하루 지역에서 강을 건너 카스터의 전면을 공격하였다. 10대 1 정도로 엄청난 수적인 열세에 있었고 또한 대포와 같은 위력적인 무기도 가져 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총에만 의존한 카스터 부대의 참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었다. 인디언 부녀들도 전투에 도움을 주었다. 여자들은 담요를 흔들며 미군의 말들이 놀라서 도망가도록 만들었다. 말이 없어진 미군을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퇴조차 할 수 없는 궁지로 몰렸다. 미군은 막판에 남아 있는 말들을 죽여 엄호 방패로 이용하며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전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대략 두 시간이 지난 오후 다섯 시경에 모든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카스터가 지휘한 다섯 개의 중대원 210명은 모두 죽었다. 전사자 중에는 카스터의 두 동생(Boston and Thomas), 매제(James Calhounan) 그리고 조카(Henry Reed)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사한 미군들의 두피는 모두 인디언에 의하여 벗겨졌으나 카스터의 머리는 온전하였다고 한다. 카스터가 정식 기병대 군복을 입지 않고 사슴가죽(buckskin)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서 인디언들은 그를 민간인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후 세 시 경 벤틴은 나팔수 병사 마틴



<카스터가 벤틴에게 보낸 쪽지(1876년 6월 25일 오후)>

(John Martin)을 통해 'Come on, Big village. Be quick. Bring packs.' 이라고 쓰인 카스터의 쪽지를 전달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인디언마을이 매우 크니 즉시 탄약 상자를 가지고 카스터의 소부대쪽으로 지원 나오라는 매우 다급한 전갈이었다. 또한 4시 20분경에는 북쪽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총성 가운데에서 미리 약속돼 있던 긴급구조요청을 의미하는 총성(volley)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쯤 리노의 소부대가 강을 건너 후퇴해

와서 벤틴의 소부대와 합류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공격함에 따라 참호를 파는 등 우선 인디언으로부터 자기 부대와 리노의 부대를 보호하기에 바빴다. 5시가 돼서야 위어(Thomas Weir) 대위의 중대가 카스터의 전투현장으로 출발했다. 그들이 약 2km쯤 북쪽으로 지금은 위어 포인트(Weir Point)라 불리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약 5km 떨어져 있는 카스터의 전투장소를 망원경으로 살펴봤더니 말을 탄 인디언 전사들이 땅에 대고 총을 쏘고 있었다. 아마도 죽거나 부상당한 미군을 상대로 다시 총을 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5시 25분쯤 카스터가 지휘하던 병력은 전원 사망하면서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곧 이어 벤틴의 나머지 병력도 카스터의 교전현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으나 카스터의 소부대를 전멸시킨 인디언 전사들이 이제는 벤틴과 리노의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벤틴의 부대는 재빨리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방어태세를 구축하였다.

리노는 앞서 있었던 교전에서 부대원 수십 명이 사망하고 바로 옆에 있던 아리카라족(Arikara) 인디언 출신 정찰병인 Bloody Knife의 머리를 인디언이 쓴 총알이 뚫고 지나가면서 유혈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통에 약간 얼이 빠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벤틴이 사실상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7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법흥왕이 정비 보도왕후와의 사이에서 적자가 없이 죽고난 뒤 왕위는 후궁들의 소생이 아닌 동생 입종갈문왕의 아들인 김삼맥종(진흥왕)에게로 이어졌다. 진흥왕의 어머니는 지소태후로, 지소는 법흥왕의 딸이다. 즉 지소는 삼촌인 입종과 근친혼으로 진흥왕을 낳았다. 그리고 540년 진흥왕이 즉위할 때 진흥이 7세(삼국유사 15세)인 점과 왕위계승 서열을 감안勘案해 볼때 자신의 아들을 왕좌에 올린 지소의 정치적인 힘은 대단하였다. 더구나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수렴정정(섭정)'이라는 권력을 잡은 지소는 당대의 여걸이 아닐 수 없다. 지소가 남긴 많은 업적 가운데 단연코 당시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랑도의 설치다. 화랑도는 좋은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으며 아울러 영원히 죽지않는 신선이 되기 위한 도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둔 수양기관이었다. 도교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방편의 하나로 유명한 방중술房中術(162) 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젊고 싱싱한 여자와 소년들과 되도록 많은 성교를 해야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랑들을, 특히 풍월주들을 보면 모두가 미소년들

이다. 그리고 후대의 기록으로 보면 지소태후와 진성여왕은 집권 시절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진흥왕의 즉위 배경을 정치적으로 살피고, 화랑도의 설치 내력을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으로 보면 왜 지소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했는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결국 도교의 바탕에서 권력을 잡은 지소는 풍월주를 비롯한 많은 화랑의 미소년들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드렸다. 즉 도교의 핵심내용이 방중술을 통한 불로장생(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란 것을 이해하면 지소태후와 진성여왕의 미소년들과의 많은 성교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지소태후는 어린 나이에 삼촌과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게다가 권력도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용인된 아름다운 청년들과의 성생활을 왜 마다했겠는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고대사회와 삼국시대의 성성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의 유교는 학문을 중심으로 정치와 교육적인 면에 접목시키면서 발전하였다. 사회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관습과 종교는 삼국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게 불교와 도교 등이 상호 교섭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점점 송나라의 문물을 받아드리면서 유교의 의식과 제도

를 문화적으로 더 장려를 했지만 이것은 불교나 도교 행사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 후 최충에 의해 사학私學이 세워지면서 교육의 내용이 종래의 훈고학(163) 면에서 철학과 윤리를 강조하는 면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려사회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도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안향安珦이 새로운 유학인 주자학을 들려 왔다. 그의 영향으로 '배불론' 이 대두되었고, 배불론의 학자들은 불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타락한 불교도의 비행과 그런 인물들을 배척하는 무리와 불교 자체를 부정하고 불교를 망국과 멸륜滅倫의 종교로 보는 무리들이 있었다. 후자의 학자들이 정몽주, 정도전 등이었다. 그리고 성리학의 이념이 고려말의 사회를 지배하면서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였다. 이 성리학에 이념을 둔 정도전을 중심으로 사회제도의 틀을 만든 '조선경국전' 이 편찬되었다. 이 속에 과부는 재가를 못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인 성관념이 바뀌어 왔다. 즉 수많은 여자들의 성적 본능에 올라가미를 씌우면서 자신들은 축첩을 하였다.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로 오면서 여자들의 지위는 점점 낮아져 갔고, 사회 전반의 성의식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부의 재가금지 등 백성과 여자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

는 1894년의 '갑오개혁' 까지 이어졌다. 근대를 거쳐 현재까지 존재하는 전통의식은 서구문물(성문화를 포함한)이 유입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신라의 성성을 받아드리기엔 망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성리학의 가면일까? 그렇다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과연 몇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직 한 명하고만 성관계를 했을까? 미혼자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기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

162) 방중술이란 간단히 성교를 많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절제하게 많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의 수행법에 맞게, 즉 이기二氣로 성립된 우주만물은 이 음양의 도도(이치理致)를 벗어날 수 없기에, 음과 양이 교섭하지 않으면 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몸속에 기의 흐름이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질병이 생겨서 죽는다. 동시에 지나친 정욕에 사로잡힌 성교도 몸에 지장이 생겨 단명하니 방중술을 잘 익혀서 교섭을 하면 불로장생한다는 설이다.

163) 유교 경전의 자구字句 뜻을 바르게 풀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 새미치과 특별할인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 임플란트, 자궁내막, 자궁근육, 성형외과, 내과

##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국에서 대해서도 병원 부담 없이 정밀검진과 함께 유선 비뇨기과 전문진료서비스

비뇨장애 + 발기장애 + 경남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방광염수술, 정관수술, 정맥류수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바쁘신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들 위한 눈안안안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2종류의 안경 14종류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노안안안안 수술  
25만원 **> 20**만원
- 복합수술 (안경 + 렌즈 + 레이저 수술) 150만원 **> 109**만원 (안경 + 렌즈 + 레이저 수술)
- 40대 노인 레이저 수술 (안경) 200만원 **> 150**만원 (안경 + 렌즈 + 레이저 수술)
- 30대 레이저 수술 130만원 (안경 + 렌즈 + 레이저 수술)

안안안 수술을 추천하는 40~50대들 위한 안안안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안안안 수술을 추천하는 40~50대들 위한 안안안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안안안 수술을 추천하는 40~50대들 위한 안안안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안안안 수술을 추천하는 40~50대들 위한 안안안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안안안 수술을 추천하는 40~50대들 위한 안안안 수술이 필요한 경우?

## 모아름

바쁘게서 모발이식센터의 선두주자  
이규호모아름모발이식센터  
"오직 비절개 사술만을 고집합니다"

이후에 한번만 확실하게 이규호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모발 이식을 30%이상 할인합니다. 수술 후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MTS(비절개)	MTS(절개)
당일 검사기	1,700원	19,200원
당일 발원기 (1회)	7,200원	12,600원
1회당당 발원기 발원 비용	-400원	-700원

수술 전/후 모습

이규호모아름모발이식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내 떡보다 더 커보이는 남의 떡, 가져도 되는걸까?' (2)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III -

지난 번 칼럼을 통해, 한국 방문 길에 대학교 동창회 연말파티에 갔다가, 별별일 없다고 여겼던 동창생의 큰 성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던 미스타 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 과수석의 성취, 대학원 전액 장학금, 석사장교, 미국유학등등, 전도가 양양했었고, 자신의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큰 회사의 사장이 된 동창생들, 자기 사업으로 자신의 월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수입을 벌어들이는 동창생들, 몇십억이 되는 자기소유의 땅과 집을 갖고 있는 동창생들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지나온 생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질투심으로 미스타 김은 의기소침해지고, 왠지 모를 불화가 치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질투심은 자신의 생에 자극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는 사십대 초반을 지나면서,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 주저하며 몇년을 보내고 있는 중 이었다. 동창회 연말파티이후, 자신도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싶다는 의욕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직장일 외에 자신의 IT 컨설팅사업을 시작했다. 서서히 자신을 찾는 구매자가 늘기 시작하자, 언젠가 자신만의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는 사는 재미를 신선하게 느끼며 이 새로운 생의 도전으로 자신의 생에 활기를 되찾았다. 성공한 동창생들과의 비교에서 느껴졌던 열등의식을 극복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의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적게 든 크게 든 서로와의 비교와 경쟁을 피 할 수 없다. 더 면밀히 말해서,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의 색깔은 많이 좌우되어진다. 비교를 더 많이 일찍 경험할수록 사회

성은 빨리 발달하게 되고,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하느냐는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형제들과의 싸움없이 모든 관심을 통틀어 받으며 자랐던 외동아이가 처음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 중, 한동안은 사회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 떨어져 고생 할 수 있다. 좋은 싫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야 하는 원초적인 시기와 질투의 과정을 뒤늦게 경험 하기 때문이다. 학급 클래스메이트와의 비교 의식의 과정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사회성은 잘 형성될 수 있다.

'출생순서(Birth Order)'의 학설을 이론화 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는 형제간 출생순위와 성격형성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출생순열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형제간 경쟁으로 제각기 다른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애들러는 차남으로 위에 자신보다 능력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차지하는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네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가족환경은 그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라린 질투심을 경험하게했다. 그는 자신의 질투심이 그의 외모의 열등감을 더욱 부추겼지만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의사, 심리학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열등감(Inferior Complex)을 극복하려는 열망과 열등감을 극복 하려는 끈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된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에게로 뛰어난 웅변가 메모스테네스는 자신의 말더듬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올림픽 육관왕 윌마루돌프도 자신의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대대로 자랑스러워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질투심은 시기심과 찬사(Admiration)의 중간 지점에 있다. 열등감의 극복과정처럼, 질투심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선택에 따라 질투

심은 '떡' 이 될수도 있고, '독' 이 될수도 있다. 열등의식은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과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는데서 시작된다. 만약,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부럽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자신도 비교하는 대상과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것은 질투심이다. 불편한 질투심을 극복하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세는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길이 되고, 생의 동기를 부여해준다. 반면, 남이 갖고 있는것을 인정하는 것이 못 견디게 싫어, 험담과 질책을 하면서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시기심이 되는것이다. 시기심은 비교 대상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자신은 갖지 못한다고 단정을 하기에, 대상을 미워하면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된다. 시기심이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만다.

미스타 김이야기로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자. 미스타 김이 동창생들의 성공을 본 후, 성공한 동창생들의 비리를 찾아 그들의 성공을 비하한 다거나, 자신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 자본이 없어 사업을 할수 없었다고 부모를 탓한 다거나, 사실은 부자인 동창생이 부러우면서도 돈이 다가 아니라며 훈계를 하려 한 다거나, 자격지심에 동창들과의 관계를 아예 다 끊어버린다면 미스타 김은 시기를 하는것에 틀림이 없다. 미스타 김이 이미 느낀 자신의 시기심을 부인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대답은 명확하다. 어떠한 의미로든 미스타 김은 점점 늘어나는 자신의 시기심으로 '분리, 소외, 분노, 상심, 원망, 지배욕구, 자기학대, 좌절' 등의 열등의식의 감정에 점점 빠져들어 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스타 김은 자신의 질투심의 극복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보다 자신이 잘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반컵의 물을 보며 '반컵 만 있네' 푸념을 하기보다는, '반컵 도 있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만' 과 '도

'는 단순한 전치사이지만, 상황을 '만' 으로 보느냐, '도' 로 보느냐에 따라, 열등의식의 극복에는 엄청난 차이가 온다.

박 완서작가는 '생각을 바꾸면' (2010) 이라는 수필을 통해, 말의 토씨 하나 만 바뀌도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노래를 못하는 박 완서 작가에게 친구들은 짓궂게 자주 노래를 시켰다. 참다 못해 "너네들은 노래 할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자유가 없냐!" 소리치며 반박을 했다. 그 이후 자신의 유치함에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러자, 자신의 혐오가 느껴졌고,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는 열등감으로 번지고 말았다. 열등감으로 우울해 하며 힘들어 할때, 한 고등 학교 동창이 연락을 했고, 그녀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동창생은 딱하다는 듯이 "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게" 하고 대답을 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담박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노래만 빼고 그녀가 잘할수 있는게 줄줄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녀는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만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자신의 교만을 보았다.

"내 것보다 더 커보이는 남의 떡" 을 가지려 하기보다, 내 떡이 무엇인 지 확실히 알고, 내 떡을 어떻게 크고 견실하게 만들까! 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되면 시기심은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또한, 적당한 질투심은 자신의 떡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일에 집중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점점 더 견실한 자신의 떡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때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교만' 과 '자랑' 이다. 이 '교만' 과 '자랑' 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주며, 시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럼, 다음 칼럼을 통해 시기심의 원인 '교만' 과 '자랑' 주는 관계의 '독' 을 살펴 보기로 하자.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34년 기술력

꾸준히 잘자리에서 날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http://www.heraldemart.com)

## 아랫목 온수 매트

# 달게 주무셨습니까?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확실한 무소유 보증**

- 자기도 일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무료배송**  
(하와이, 알라스카는 \$90추가)

01 공중기압 원동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타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전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8) 주식시장 폭락의 실체

주식시장 폭락에 관한 기사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는 주식시장 폭락이 중국의 경기침체와 오일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의 무역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중국의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중국의 경제가 침체하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3을 수출하는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1만을 수출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낮다는 말이고 중국 경제 침체로 미국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음을 말합니다.

작년 3분기까지 미국 총 생산량(US GDP) 중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1%였습니

다. 중국의 경제침체로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미국 총 생산량이 단 0.1%만이 적어진다 뜻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는 원자재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바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향 역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30년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폭락(1987, 2001, 2008)등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10%만 하락해도 일반 투자자는 놀랍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손을 털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는 주식을 공개하여 자금을 모아 새로운 상품 개발, 공장신설, 등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렇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거대한 도박장소와 비슷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

국에 투자한 총투자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년 전 휘발유 가격이 약 \$4 달러일 때 불평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지금 불평합니다. 사람은 이래저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일가격 하락이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굳이 말한다면 이렇합니다.

\* 오일회사 수익금이 2015년 반 토막이 되었다.

\* 오일회사 직원 130,000이 직장을 잃었다.

\* 81개의 오일에 관계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

\* 오일 수출에 의존하던 신생국가(브라질, 베네수엘라, 등)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 국가 하부구조(infrastructure) 건설 등을 투자 중인 중동 국가들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세계 경제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에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오일가격 하락으로 혜택을 받는 산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회사 등입니다. 비행기 회사인 델타(Delta)는 2015년 오일가격 하락으로만 \$5.1 billion을 세이브(save)했습니다. 사실 에너지에 연관된 회사는 S&P 500에 6%만을 차지합니다.

오일을 개발하는 신기술로 오일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중동 오일에 의존하던 때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일수출하는 나라나 국내의 노스 다코다와 텍사스 주에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미국 전체로 볼 때는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오일 가격하락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비관적인 소식 멀리하시고 장기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봄철 집 단장과 관리

집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나쁜 요소는 빗물의 침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은 잘 관리하면 가치는 오를 뿐 아니라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주위에 자연 배수로를 만든다.

우리가 거주 하고 생활하는 이곳은 봄철에 굶은비가 자주 내린다. 봄철 집 단장은 한마디로 집 주변에 흐르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의 관리 상태가 결정될 수 있으며, 아무리 보기 좋고 잘 꾸며진 집이라도 집 주위의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좋은 집이라고 볼 수 없다. 빗물이 적절히 배수가 안되어 집 주변에 고이고 땅속 지하실의 기초벽을 따라 스며들게 되면 지하실 벽으로 물이 스며드는 누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손상과 곰팡이 및 벌레들이 좋아하는 서식처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집 주위의 모든 물은 외부 벽면 쪽의 지반이 높아 물이 집 외각으로 멀리 흘러 나가게 하여 지하실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지반을 인위적으로 높일 때, 벽면의 벽돌이나 사이딩을 덮게 되면 개미나 터마이트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구조물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초벽이 지면

에서 6인치 이상 노출되도록 만들 것을 권유한다. 집 주위에 자연 배수로를 만들 경우 큰 타원형식의 Drainage Swale System을 만들 경우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붕의 물은 물받이통과 홈통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지면으로부터 12인치 정도에 엘보 홈통을 연결하여 6피트이상 벽 밖으로 뽑아내어 물이 될수록 멀리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또한 홈통을 지표면 속으로 묻어 지상에서 물을 유도하여 도로가의 맨홀로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는 것도 권유한다.

- 물받이 통의 청소와 각도의 중요성

지붕주위에 달려있는 물받이통(Gutter)은 물을 담아서 물 홈통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빗물이 끝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낙엽 등으로 막히거나 물받이통의 달려 있는 각도가 맞지 않을 경우 찌꺼기 물이 고이게 되고 물받이 통이 처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또한 물받이 통이 앞으로 들려 있어 물이 처마 안쪽으로 넘치게 되면 처마 및 받침대안으로 흘러 벽을 타고 스며들게 되기도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천장과

벽의 만나는 곳에 페인트가 부풀어 떨어지며 검푸른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홈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새집일 경우 의외로 이런 현상도 종종 발견된다. 물받이통의 청소는 필수적이며, 사전에 처마끝의 물받이통이 똑바로 달려있나 점검하여 물이 넘치거나 역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부터!

인터넷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

### 신고·신청 대상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1997. 4.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

###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k.nec.go.kr**
- 공관방문, 순회집수, 우편, 전자우편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 2016. 3. 30. ~ 4. 4. (공관별부 기간중 6일 이내)  
인터넷 검색창에 **재외선거** 를 쳐주세요



성기주 변호사 칼럼

# 재정보증 신청서 (I-864)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Form I-864 (재정보증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추가 자료 요청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재정보증 신청서에 기재된 재정보증인의 급여가 가족구성원 (Household)에 비해 낮게 기재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요청되지 않아야 하는 추가 자료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내면 이민국은 가장 먼저 하청업체 (Contractor)를 통해 initial screening을 실시합니다. 신청서들에 기입된 모든 신청자들의 신상 정보들을 이민국 시스템에 기입하게 되고 이민국에서 제공한 check list를 통해 제대로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서인

지 확인하게 됩니다.

재정보증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기입된 정보들이 확인되고 자격조건 여부가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재정보증인의 급여가 총 가족구성원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보증 신청서에는 현재의 급여를 적는 '란'이 있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에 기입한 급여를 적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는 1년 전의 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급여가 가장 큰 기준이 되지만, initial screening에서 최근 세금보고서에 기입된 급여가 충분치 않은 경우 (가장 최근 급여가 충분해도) 추가 서류 요청이라고 체크되어 이민국 직원에게 보고되고 이런 경우 대부분 추가서류 요청이 이뤄집니다.

첫번째 문제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를

처리하는 National Benefit Center는 어떠한 경우든 추가서류 요청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 다음단계인 신청자의 거주지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거죠. 다음 문제는 노동 허가 및 여행허가서에 대한 심사 또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 서류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재정보증인의 현재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도 재정보증인의 현재 재산으로도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현 급여가 부족할 경우 재산에 대한 가급

적 많은 자료를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추가서류 요청이 와도 이에 대해 응답만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 과정동안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되도록 많은 자료들을 보내는 것이 번거로워 보여도 시간을 절약하시는 길 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내 한국 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두 마디 아는 척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순위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 혹은 대학 교수, 교환 교수, 기업 간부, 주재원들이 해당됩니다. 4순위는 종교 관련 업종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등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흔히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이민입니다. 1순위나 5순위의 경우, 흔히 '스폰서'라고 불리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2순위에는 NIW라고 하여 고용주가 필요없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5순위는 기본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 내 고용주 이민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 (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를 소지하고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으나 1순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지만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2순위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2순위에 해당됩니다. 이 때, 학위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받은 학위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3순위입니다. 3순위는 숙련공 (skilled workers), 전문직 (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s)으로 나뉩니다. 숙련공은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졸이나 전문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고려합니다. 전문직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

람으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잡 (office job)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가 하는 일 자체가 해당 학력이나 경험을 요구하는지가 자격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H-1B와 같은 비이민 취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3순위가 수년이 걸리는 등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진행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2순위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우려로 3순위를 기피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경우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확인하고 미국 내 취업 시장에서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기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단거리 달리기 보다 장거리 달리기와 비교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단계 별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산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 (Job title)으로 들어가는지가 순위 결정이나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의 실제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영주권 신청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이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mailto: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http://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http://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제7탄

휴람 특별가 이벤트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상담 및 문의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검사, 백내장, 녹내장, A/D검진/3D검진 초음파검사, 안압측정검사, 시력측정수검에 검사  
~~25~~ 만원 → **20** 만원

2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 만원 → **109**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 별도)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 만원 → **150**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 만원 (DNA(10만원 상당), 안 종합검진 포함)

※ 수술 내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 종합검진 진료료 차등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라섹을  
놓치셨다면...

20~30대 이안/3D/3D/3D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한 노안교정기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화면을  
돋보기로 볼 때 피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안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환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보스톤규리아** T. 617-955-9112



해의외로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렌드로맷(La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렌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렌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턴 북쪽 일식당 풀 비어/와인 리커 면허증, 연매상 \$600,000 매매가 \$200,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렌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렌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 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1.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입처리

### 각종 경시대회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